

▶ 레드클럽

상담원은 동두천 레드클럽에서 3명의 여성을 만났다. 마사, 마리아 그리고 타냐는 2003년 3월 4일 한국에 왔다. 이 클럽은 러시아 여성과 필리핀여성을 고용하고 있었다. 클럽주인이 새 클럽을 사게 되자 필리핀 여성은 그곳으로 보내졌고 러시아여성은 남아 있게 되었다. 러시아여성들은 클럽의 손님이 거만하다고 싫어하였다. 마리아는 러시아에서 결혼을 하였으나 미군과 결혼하고 싶어한다.

마사는 블라디보스톡출신으로 클럽일을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에는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월급 600달러를 받자 다음날 한국을 떠났다.

생활 환경

대개의 러시아여성이 클럽의 규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클럽이 문을 열기전에는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 여성들은 쇼핑을 하거나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며 친구나 남자친구와 만나면 점심때부터 술을 마시곤 한다.

문제점 및 우려사항

대개의 여성들은 속아서 사인을 하여 러시아에서 계약할 때 들은 것과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된다. 러시아에서의 계약서는 러시아어로 되어있지만, 한국에서의 계약서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되어있다. 그들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완전히 다른 두개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된 것이다.

클럽에서 일하지 않는 여성들

▶ 악사나

악사나는 클럽에서 3년간 일을 하였으나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러시아 되돌아가 미군남자친구가 러시아로 와서 결혼하게 되기를 기다렸다. 미군남자친구는 한국에서 첫휴가를 가지게 되자 러시아로 그녀를 찾아왔다. 그들은 러시아에서 결혼을 하였고 악사나는 한국비자를 가지게 되었다. 그 후에 SOFA비자로 바꾸었고 현재는 미국으로 이민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 아나스타시아

아나스타시아는 러시아인으로 25살이다. 그녀는 2003년 5월 14일에 E-6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왔다. 러시아에서 이혼을 하였는데 한명의 아이가 있다. 그녀는 2003년 11월 매니저가 돈을 주지 않자 두레방에 찾아왔다. 파주의 핸드폰공장에 일을 하게 되었으나 그다지 오래있지는 않았다. 파주를 떠나 현재는 의정부의 핑키 클럽에서 일하고 있다.

▶ 리나

리나는 25살로 한국에는 2003년 4월 23일 E-6비자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그녀는 기독교인으로 러시아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전형적인 러시아 여성의 큰 키와 금발에 흰 피부의 모습은 아니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으면 한국인으로 생각될 정도이다. 그녀는 일자리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아나스타시아와 함께 두레방에 찾아왔다. 그녀는 파주의 핸드폰공장으로 일을 하러 갔으나 아나스타샤와 함께 곧 일을 그만 두었다.

생활 환경

쇼핑을 하거나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낸다.

문제점 및 우려사항

러시아 여성들이 클럽에서 도망을 하면 그들은 무척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여성들은 클럽에서의 생활이 무척 고되더라도 계약서

대로 이행하는데, 러시아에서 한번 계약을 하면 법적으로 이행을 해야만 한다고 배우기 때문이다. 클럽의 환경이 참을 만하면 대개의 여성들은 그대로 지내기를 원하지만 그보다는 그들에게 다른 일자리가 대안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러시아여성들은 영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화카드나 그 외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러시아대사관 이외에, 시민단체에서 이들 여성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러시아인 상담원을 찾기가 힘들다.

3) 한국 여성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

▶ 김선희

김씨는 45세로 고아출신이다. 12살때 대구에서 올라와 동두천에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한 뒤부터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죽 동두천에 살았다. 현재는 클럽에서 마마상으로 일하지만 그전에는 클럽에서 일을 하면서 만난 미군과 결혼해서 미국에 가서 살기도 하였다. 미국에서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 후 조금 더 살다 한국에 돌아와 다시 동두천으로 왔다. 건강이 좋지 않아 전에 일하던 클럽에서는 해고당하였다.

무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클럽에서 일하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해볼 생각은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다. 관절염에 골다공증, 빈혈 등 질병으로 많이 고생하고 있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결혼한 한국남성과 이혼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는 신청하지 못한 상태이다. 자신이 혼자 클럽에서 버는 돈으로는 빚을 갚고 생활하기가 어려우며, 더구나 병원비용이 없어 병원에도 못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는 왼쪽 귀도 잘 안 들리고 명치에 혹이 생겨 수술도 필요한 상태이다. 10월 말 해고를 당해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데 갈 곳이 없는 것이 큰 걱정이었으나, 그 후 이웃의 도움으로 방을 옮기게 되었다.

문제점 및 우려사항

이 여성은 하루빨리 이혼문제의 정리가 필요하다. 무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상담해 주었지만 다른 단체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서류상 이혼이 되지 않았다거나 하는 문제로 의료보험이 없다하더라도 적절하게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또한 나이가 젊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면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머물 수 있는 긴급 쉼터가 필요하며, 상담과 직업교육을 병행하며 전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센터가 필요하다.

3. 파주

1) 필리핀 여성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

파주에서는 클럽 밖에 나와 앉아 있는 세 명의 여성들을 가끔씩 만날 수 있었다. 세 여성은 모두 엘비스 프레슬리라고도 불리는 엘라 프린스(Ella Prince) 클럽에서 일하며, 이름은 멜(Mell), 진(Jean), 그리고 크리스(chris)였다. 이들은 모두 이십대 중반으로 필리핀 여성이었다.

멜은 클럽에 놀러 온 미국인 TV 프로듀서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그녀의 연락처를 건네주었다. 클럽 일을 그만두고 싶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몰랐던 것이다.

파주시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파주시에는 필리핀 여성을 고용한 클럽이 두 군데 있다. 한곳은 네 명의 필리핀 여성을 고용한 맥키클럽(Macky Club), 그리고 세 명을 고용한 엘라 프린스 클럽이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2003

년 10월 이후에 엘라에서 세 명, 그리고 맥키에서는 무려 여덟 명의 필리핀 여성이 클럽에서 도망친 사실을 확인했다. 파주의 클럽에서 일을 했던 러시아 여성에 따르면 위의 두 곳 이외에도 킹이라고도 불리는 크링글(Kringle Club)클럽, 과 파라다이스로 통하는 파리(Paris Club)클럽에서도 필리핀 여성들이 일을 한다고 한다.

클럽에서 일하지 않는 여성들

▶ 도망친 여성의 사례 1 : 렉시, 라니

렉시(25세)는 필리핀의 타알락(Tarlac) 시의 밤반(Bamban) 출신이다. 현재 법적으로 혼인상태인 그녀는 남편과 별거중이며 남편 사이에서 낳은 두 아이들을 기르고 있다. 천주교 신자이며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인 그녀는 필리핀 어, 영어, 그리고 타알락 지방 방언인 카팜파간(Kapampagan)을 구사한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그녀는 고향에서 공장노동자로 일하며 주당 천 페소(약 2만 4천원)를 벌었으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2002년 8월 1일에 E-6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

렉시는 법적으로 19살에 혼인했으며 일년 후에 첫아이를 가졌다. 하지만 3년 전부터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다. 이유는 남편이 종종 마약을 하는 등의 아버지로서의 무책임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남편과 같은 공장에서 근무를 했으며 따라서 렉시의 부모가 그녀의 두 아이들을 봐주어야 했다. 오남매 중 둘째인 렉시는 그녀의 형제들은 모두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반면 그녀만이 별거 중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녀의 남편은 별거 중에 단 한번도 아이들(각각 6살, 3살)과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렉시는 한국으로 건너와 클럽에서 일하면서 미군과 결혼해 살고 있는 친구에게 클럽 일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 렉시의 친구는 직업 모집책인 엘레나(Elena)를 통해 이 일을 소개 받았다고 한다. 렉시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클럽 일이 무슨 일인지 잘 몰랐지만, 렉시가 한국으로 떠나기 하루 전에서야 브로커를 통해 술집 웨이트리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엘레나가 렉시는 한국에

가서도 잘 할 것이라며 어머니를 설득하면서 렉시의 계약서에 있는 부모 동의란에 서명 할 것을 독촉했다. 결국 렉시의 어머니는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렉시를 비롯한 필리핀 여성들이 필리핀을 떠나는 순간부터 한국인 매니저가 동승했으며, 필리핀 여성들은 모두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후 매니저는 필리핀 여성들의 여권 및 관련 서류를 빼앗았다. 클럽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필리핀 여성들은 일하는 동안에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의 서류를 본인이 소지하지 못했으며, 이 사실은 출입국관리소에서 클럽을 조사하면서 밝혀진 사실이다. 이 조사 이후에 여성들은 본인의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었고, 따라서 렉시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클럽을 도망칠 수 있었다.

렉시는 킹 클럽에서 6개월간 일을 했다. 일하는 동안에는 항상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어야 했고, 이외에도 몇 가지 어겨서는 안 되는 규칙이 있었다. 먼저 남자친구를 사귀면 안 되고(하지만 클럽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렉시는 말한다), 또한 미군기지인 캠프 하우스(Camp Howze)에 출입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필리핀 여성과 대화를 하면 안 되었다. 근무 후에 외출 시간 또한 철저히 통제되었고 외출을 한다 해도 매번 마마상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근무 시간 동안에는 배고파도 먹지 못했다. 여성들을 가장 괴롭힌 사람은 클럽주인의 딸이었다. 그녀는 밤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손님이 없는데도 새벽 2시까지 일을 시켰다.

렉시가 한국에서 술집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받는 한달 월급은 52만원이었으며, 10달러짜리 술을 팔면 그녀에게 떨어지는 커미션은 1,500원 뿐이다. 그녀는 턱없이 높게 잡은 클럽의 영업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한 달에 150명의 술을 배정 받았다. 비록 판매실적에 대해 벌금 등은 없었지만 1,500원의 커미션은 턱없이 적은 것이었다. 2차를 금지하는 것도 규칙 중 하나였다. 설령 손님 중에 그런 제의가 들어와도 거절할 수 있었다.

렉시가 필리핀에서 서명한 한국어와 영문으로 작성된 계약서에는 그녀의 한 달 월급 52만원과 한 달에 이틀간 휴일, 그리고 한번의 무료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작 휴일은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었으며 무료건강검진이외의 입원비, 진료비등의 모든 의료비는 개인이 부담해

야 했다. 업주는 휴일에도 택시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근무하도록 요구했으며 따라서 그녀는 쉬는 날임에도 저녁에는 자신이 서빙을 맡은 룸을 지켜야 했다.

택시가 근무한 클럽의 손님은 주로 미군병사들이었지만 미군기지의 귀영시간 및 통금시간 이후, 혹은 비상경계근무 시간에는 한국인의 출입이 허용되었다. 클럽은 평일에는 저녁 6시부터 새벽 12시, 주말에는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영업했다. 미군 이외의 손님은 미군이 모두 클럽을 나간 뒤에야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었다.

택시는 필리핀 여성들은 한국인 손님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 클럽에서는 종업원들이 춤을 꼭 추지 않아도 되었으며, 2차 또한 나가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일할 때는 반드시 미니스커트 등의 섹시한 옷을 입어야 했고 옷은 여성들이 직접 사야만 했다. 택시가 처음 왔을 때 섹시한 옷을 구입하라고 10만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월급명세서를 보니 10만원이 깎여 나왔다고 한다.

숙식은 제공되었고 식비로 일주일에 1만 5천 원씩 받았다. 하지만 택시는 혼자 일주일을 살기에는 만 오천 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네 명이 식비를 모아 음식 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하였다고 한다.

택시가 클럽 일을 그만둔 이유 중 하나는 클럽주인의 신체적인 학대 때문이었다. 그녀는 근무 중 하우스 기지 출입을 금지한 클럽의 규칙을 어기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기지에 들어갔다. 택시의 남자친구가 그녀의 이름을 기지 출입일지에 적어놓아서 업주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업주는 택시를 향해 재떨이를 던지는 등의 폭력을 가했고(다행히 재떨이를 피해서 다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 그녀를 클럽에 알선해준 매니저는 업주는 택시를 파주에 있는 다른 클럽으로 보낸다. 택시는 그녀는 서울에서 일하기를 원했지만 알선업자는 그녀가 지방에서 고생하게 하려고 파주로 보냈다고 한다.

또 다른 클럽인 에이스 클럽에서도 통금 이후 미군이 빠져나간 뒤의 특실은 한국 손님들이 차지한다. 손님이 주문을 한 뒤에는 여성종업원의 접대가 시작된다. 하지만 팁의 액수에 상관없이 종업원에게 떨어지는 돈은 1만원뿐이다. 또 다른 여성인 라니는 클럽 특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손님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술을 마시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한국인은 특실에서 섹스를 요구하기도 한다. 라니는 한국인 손님이 자신

에게 특실에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고 룸을 빠져나온 경험이 있다. 라니는 클럽주인에게 손님의 몰지각한 태도에 항의했지만 클럽주인은 특실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반응했다. 결국 그 손님은 라니를 대신해서 러시아 여성에게 화대(1만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었다.

손님 중에서는 미군이 가장 상식이 통하며 여성에게 친절하다고 라니는 말한다. 한국인 손님은 필리핀 여성에게는 기피 대상이며 통금 이후에 클럽에 출입할 수 있는 필리핀 손님은 한국인보다 더 심하다. 이들은 술이 만취되었을 때 여성들에게 몸을 손을 대기 시작한다.

라니는 처음에는 럭키 클럽에서 6개월간 일을 했었다. 서울로 가지 않고 파주에 있는 크로바 클럽으로 일자리를 옮기기로 결정한 후 적어도 2~3개월은 클럽의 환경이 마음에 들었다. 왜냐하면 전에 일하던 킹 클럽은 규칙이 매우 엄했기 때문이다. 일만 잘하면 럭키 클럽의 주인은 라니의 자유시간까지 간섭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번은 라니의 동료가 술에 너무 취해 손님이 주문한 술을 다 마시게 하지 못하자 라니가 동료를 돕기 위해 그 술을 마신 적이 있다. 그 사실을 안 주인은 라니에게 욕을 퍼부었다. 그때 라니가 주인에게 “특실에서 일하는 기분을 압니까?” 라고 했고, 주인과 다툰 그 다음날(2003년 4월 7일)에 그녀는 그 일을 그만두었다. 라니를 맡고 있는 한국인 매니저는 클럽주인에게 라니를 주말 밤에만 근무시키고 월급도 안주는 이태원의 한 클럽으로 옮긴다고 했고, 그날 밤 라니는 근처 클럽에서 하룻밤을 자고 서울로 올라가 클럽이나 단란주점이 아닌 일자리를 구해 일하다가 파주를 떠난 지 3개월만인 2003년 7월에 다시 파주로 돌아왔다.

현재 라니는 파주의 칫솔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 도망친 여성의 사례 2 : 이르마

필리핀의 라구나(Laguna)출신의 이르마(25세)는 현재 칫솔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녀는 한국에 들어올 때 받은 E-6비자로 6개월 정도 클럽에서 일을 했다. 처음에 그녀가 클럽에서 일할 때는 주인이 잘해주었고 하기 싫은 일은 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한국인이 들어오자 클럽의 모든 규율이 바뀌었다. 그 한국인 여성은 이전에도 몇 군데 클럽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여성들에게 손님들 앞에서 반 스트립쇼를 하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

또한 팔아야 할 술을 접대부들에게 할당하여 여성들의 목을 조여 왔다.

결국 이 한국인 마마상을 참을 수 없었던 한 필리핀여성은 그녀와 싸움을 하고, 그 사건 이후로 이르마가 일했던 영클럽의 모든 필리핀 여성은 클럽을 나가게 되었고, 러시아 여성만 남게 된다. 클럽 일을 그만둔 필리핀 여성 중 두 명은 미군과 결혼하여 살고 있고, 이르마는 칫솔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 도망친 여성의 사례 2 : 패니

필리핀 팔라완(Palawan)시 출신의 패니(21세)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모국에 애인이 있다. 패니보다 아홉 살 연상인 그는 한달에 5천 페소를 받고 마닐라에 있는 페닌sula 호텔에서 일하며 패니와 그 사이에서 낳은 한 살 된 여자아이를 기르고 있다. 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 신청서를 냈을 때 그녀는 둘째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필리핀 현지 매니저는 그녀에게 서빙만 하기 때문에 일하는 데는 문제될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한국에서 클럽 마마상은 그녀에게 2차를 요구했고, 이르마는 동두천(TDC)에 있는 포니 클럽에서 도망쳤다.

패니는 8남매 중 첫째이고 그녀 밑으로 세 명의 여동생, 네 명의 남동생이 있다. 둘째는 16살이며 올해 7월에 아이를 낳았다. 패니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한국에서 버는 돈을 모두 필리핀으로 보내야 했다. 어머니에게는 5천 페소(한화 약 12만 원), 그리고 여유가 되면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1만 페소(한화 약 24만 원)를 보내고 가끔씩 둘째 동생에게도 돈을 부친다. 학교에 다니는 동생들을 위해 등록금 및 학용품과 옷을 사주는 것도 패니의 몫이다. 그녀는 자신이 돈을 버는 족족 모두 필리핀에 있는 그녀의 가족들에게 보낸다고 하고 그녀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 거의 없다고 한다.

패니는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했다. 부모님께 신세를 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16살이 되었을 때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국에 오기 전에 그녀는 마닐라의 상점에서 점원으로 한달에 4천 페소씩 벌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그녀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으며, 한국으로 건너온 이유도 그녀의 가족과 남자친구가 재정적으로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클럽에서 도망친 후 패니는 공장 두 곳에서 일을 했다. 처음 일했던 공장은 포천에 있는 핸드폰 공장이었고 이곳에서는 월 48만원을 받았다. 두 번째 일했던 공장은 양말 공장인데, 거기서는 월 75만원을 벌 수 있었다. 패니는

가장 마지막으로 일했던 공장에서는 한 달 치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공장 사장은 그녀에게 나중에 월급을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공장에서 그녀는 8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일을 했으며 야근이 있을 경우에는 저녁 7시부터 30분 동안 저녁을 먹고 다시 공장에 돌아와, 자정 혹은 새벽 1, 2시까지 일을 했다.

현재 그녀는 의정부에서 여권을 발급 받아 지난 10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합법화 기간에 신고를 했다. 이제 그녀는 파주에 있는 칫솔 공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다.

▶ 도망친 여성의 사례 3 : 자니

자니(25세)는 필리핀의 세부(Cebu) 출신이다. 그녀는 금년 1월31일에 E-6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왔으며 정식인가를 받은 파사이(Pasay)시에 위치한 에이전시(ASH Manpower International Service)를 통해 입국했다. 그녀는 동두천에 있는 버드 클럽에서 일을 했다. 이 클럽은 필리핀 정부로부터 검증 받은 곳이었으며 자니를 관리했던 현지매니저는 아낙프로모션이었다(자니는 프로모션사장을 안씨라고 불렀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일에 대해 듣긴 했지만 실제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는 한국으로 떠나기 하루 전이었다.

자니는 버드 클럽에서 2003년 1월31일부터 5월29일까지 약 4개월을 일했다. 그녀가 클럽에서 도망친 이유는 하룻밤에 병당 20달러씩 하는 술을 20병이나 팔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이다. 20달러짜리 술병 한 개를 팔 때 그녀가 받게 되는 커미션은 3천 원이었다. 클럽의 규칙은 할당량을 팔지 못했을 경우 문을 여는 시간부터 새벽 4시까지 중일 앉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벌을 받았다. 한국으로 올 때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니는 계약서에 따라 한달 월급 중 28만원을 소요경비로 빼앗겼고, 따라서 한달월급 80만원 중 28만원을 빼 나머지 52만원(미화 약 4백달러)만 받을 수 있었다.

자니는 지난 2월에 100달러, 3월에 400달러, 5월에 400달러,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총 900달러를 받았다. 그 클럽에도 2차는 있었다. 그러나 미군 남자친구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니는 2차에 나가지는 않았다. 또한 필리핀 대사관에서도 2차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넘블 기지(Camp Nimble)에서 근무하는 미군 상사인 JDW는 미국 아칸소주 출신으로 자니가 클럽에서 일을 시작한 후 만난 첫 손님이다. JDW는 자

나와 성관계를 맺은 첫날에 자신은 결혼한 몸이며 부인은 하와이에 있다고 얘기했다. 그의 부인은 한국인으로 현재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이며 자신은 이혼하고 싶지만 한국여성은 그와 헤어지길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는 부인은 결혼 전에 하와이에 있는 클럽에서 일을 했다고 했으며, 결혼 후에도 계속 클럽 일을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줄리엣이라는 여성과 사귀고 있으며 그녀는 지금 임신 4개월 짜라고 했다.

자니는 JDW 상사와 사귀기 이전에 임신경험이 있다. 그러나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사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낙태를 결심하고, 필리핀계 미군의 도움을 받아 낙태용 약(Isotek) 두 알과 독한 양주를 마시고 결국에 아이를 유산시켰다.

2003년 5월 29일, 자니가 클럽을 도망친 후 그녀는 수색에 살고 있는 필리핀 친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 자니는 수색에 있는 앨범공장에서 7월 29일경 일을 시작하고 약 15일을 일했지만 보수는 전혀 받지 못했다. 클럽을 나온 후에도 JDW 상사와는 주말마다 이태원에서 만났으며, 자신이 임신했음을 확인하자 JDW에게 사실을 말했다. JDW상사는 그의 한국부인이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또 '가지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녀에게 아이를 지우지 말라고 했다. 상사는 자니에게 방을 얻어주기로 약속했지만 지키지는 않았다. 그 이유를 상사는 본인은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수입은 모두 한국인 부인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혼을 해야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자니는 상사가 자신과 결혼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상사는 그녀에게 약혼반지까지 선물한 상태였다.

상사는 자니의 의료검진비용을 한번도 내 준 적이 없었다. 2003년 8월에 그녀는 파주로 내려가 체본공장에서 일을 했다. 임신 후 상사와의 만남은 뜬 해졌고 전화통화만 주고받았다. 그녀를 책임지기 원하지 않기도 했지만 그는 다른 클럽에 또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이다.

공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필리핀 여성이 공장사장에게 자니의 임신 사실을 얘기하자 사장은 자니를 해고했다. 자니는 JDW에게 전화를 해서 긴급히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단지 돈을 보내줄 테니 필리핀으로 돌아가라는 말만 했고, 그녀는 일자리도, 잠잘 곳도 없는 임신한 몸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계속 일할 곳과 산모보조가 필요한 상태이다. 지금 그녀는 필리핀의 가족들과 임신하고 있는 아이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

자니는 지난 11월경부터 무직상태이다. 그녀는 2003년 5월에 클럽을 도망쳤기 때문에 정부가 지난 10월 실시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합법화' 기간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인 '2003년 3월까지 증빙서류가 없는 불법체류노동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상담원은 JWD씨의 군 상관에게 자니의 임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사자인 JWD씨를 만나 문제 해결에 대해 이야기했다. JWD씨는 유전자 감식 후 본인이 아이의 친부임을 인정하며, 아이에게 미국 국적을 주고, 그동안 자니가 지불한 의료비를 보상하고 아이의 양육비를 보조한다는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하였다. 이 진술서는 캠프 케이시의 군법원의 인증을 받은 것이다. 지금까지 JWD 상사는 자니의 의료비를 전혀 보조해주지 않았다.

자니는 상담원의 도움으로 현재 파주에 위치한 휴대폰 공장에서 출산예정일 동안 일을 하고 있으며, 상담원은 미혼모인 자니에게 2004년 3월부터 출산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춘천의 한 쉼터를 연결시켜 주었다. 자니의 출산예정일은 2004년 4월 셋째 주이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1 : 체리

필리핀의 민도로(Mindoro) 출신인 체리(26세)는 멕시코계 미국인 병사와 결혼했다. 그녀는 결혼 전 클럽에서 일을 했으며, 현재 아이 둘을 기르고 있다. 첫째아들(4세)은 현 남편을 만나기 전에 낳은 아이이며, 생후 삼 개월째인 둘째 아들은 현재 미국인 남편 사이에서 낳았다. 그녀는 지금 남편은 매우 질투심이 강해서 그녀 엉덩이에 '존(체리의 남편)의 것'이라는 문신을 새기길 원한다고 했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2 : 도리스

도리스(28세)는 고향인 필리핀의 케바이트(Cavite)에 아홉 살짜리 딸을 두고 있다. 현재 그녀의 딸은 초등학교 3학년으로 그녀의 부모가 딸을 기르고 있다. 도리스는 딸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고 싶어 하지만 딸의 학업문제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그녀는 현재 22살의 코네티컷 출신의 미군병사와 결혼한 상태이다. 결혼 전 그녀는 파주시의 캠프 하우스 근처 클럽인 럭키 클럽에서 일했다.

도리스는 클럽의 규제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모두 채운 후

일을 그만두었다. 그녀가 근무했던 클럽은 2차나 판매할당 등은 없었다. 계약 기간을 채운 후 도리스는 필리핀으로 돌아갔고 현 남편은 그녀의 고향에서 결혼했다. 다시 여행자 비자로 한국으로 돌아온 도리스는 SOFA 비자로 바꾸어 현재는 공장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낮에만 근무한다.

문제점 및 우려사항

비인도적 대우 때문에 클럽을 나온 여성들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실정이다. 클럽에서 도망쳤을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사기를 당하거나 이용만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또한 도망친 여성들을 수용할 만한 보호시설도 없는 실정이다.

미군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여성의 경우 당사자인 미군에게 의료비 지원, 아이 양육비 지원 등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미군 친아버지는 그대로 본국에 귀환하여, 그 결과 한국에서 필리핀 여성이 혼자 기르는 미국인 아이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사례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본국 송환조치 없이 악덕 클럽고용주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고향에 가도 직업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클럽일 이외의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별한 비자가 필요하다.

2) 러시아 여성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

파주에서 인터뷰한 여성들은 모두 엘리 클럽에서 일하고 있다. 이 여성들은 여권을 직접 소지하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해 그다지 걱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여권 대신 외국인 등록증을 지니고 있었다.

▶ 알로나

알로나는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26살이다. 부모는 이혼을 하였다. 언니는 아버지와 우크라이나에서 살았으나 그녀는 어머니와 살기 위하여 러시아로 가게 된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서 일을 하였으나 돈을 충분히 벌지 못했는데 친구를 통해 한국의 일자리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한국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잘 알려져 있다. 그녀는 신문에 광고를 한 업체를 찾아갔다. 업자는 흥미가 있는 여성들의 사진을 찍어 그 사진들을 한국인 매니저에게 보내어 고르게 하였다. 선택된 여성들은 서류를 만들며 한국으로 보내지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녀는 2002년 2월부터 2002년 9월까지 한국에 있었다. 그녀는 의정부의 봄 클럽에서 일을 하였다. 그녀는 6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자 봄 클럽에서 도망을 하였다. 그 후 동두천에 살다 러시아로 되돌아가게 된다. 러시아로 되돌아가기 전 그녀는 35살 된 미 공군을 만나게 된다.

2002년 9월 그녀가 러시아로 되돌아가자 남자친구는 카드를 보내고 전화를 하며 계속 연락을 취하였다. 러시아에서의 삶은 어려웠기 때문에 그녀는 다시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2003년 2월 8일 알로나는 두 번째로 한국에 와서 파주의 엘리 클럽에서 일하게 된다. 다시 한국에 왔을 때, 그녀는 2백만 원이나 드는 수술을 해야 하였는데, 돈이 없어서 매니저에게 빌려야만 하였다. 그녀의 계약기간은 2003년 7월까지여서 그때까지 계속 돈을 갚았다.

수술로 인해 월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그녀는 2차를 나가고 손님에게 많은 술을 사라고 강요해야만 하였다. 그녀가 일하는 클럽의 한달 술 할당량은 130잔이었다. 할당량을 채우면 받는 커미션은 한잔 당 2천원이었고 채우지 못하면 1천 5백원이었다.

2002년 9월 그녀가 러시아로 가자 미국에 있던 남자친구는 전화를 하여 한국에 돌아와 클럽에서 일하지 말라고 하였다. 남자친구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러시아로 되돌아가게 되면 자신이 돈을 보내겠다고 하였다. 나이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알로나는 진심으로 남자친구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클럽에서 계속 일하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남자친구는 2명의 러시아 변호사와 1명의 미국인 변호사를 고용하여 러시아로 가서 결혼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대사관의 도움으로 매니저와 협상하여 서류를 준비하고 바로 러시아로 떠날 수 있었다.

▶ 타나

타나는 러시아에서 온 23살의 아가씨이다. 그녀는 2003년 3월 한국에 도착하였다. 그녀는 엘리 클럽에서 일한다.

▶ 샤샤

샤샤는 한국에서 2년을 일하였다. 그녀의 비자는 2003년 8월에 만료되었다. 캠프 하우제는 너무 작고 거의 모든 미군이 여자친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만들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그녀는 대신에 레즈비언 여성인 미군을 애인으로 삼고 있다.

▶ 카차

카차는 한국에 두 번 왔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동두천의 클럽에서 일을 하였다. 현재 파주의 엘리 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다. 왜 한국인업주와 매니저가 여성들을 이런 식으로 함부로 대하며 고국으로 되돌려 보내겠다고 늘 협박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의 경제를 돕고 있어요.” 라고 말하였다.

생활 환경

엘리 클럽의 근무시간은 주중에는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이며 주말에는 오후 5시부터 밤 1시까지이다. 이 클럽은 미군전용클럽이지만 통금이 시작 된 이후, 그리고 부대 밖으로 출입이 금지 될 때에는 다른 국적의 사람들도 받아들인다. 알료냐에 대한 서술에서 나타나듯이 여성들은 술 할당량을 통해 커미션을 받게 되며, 2차를 나가는 것은 일상적이다. 여성들은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며, 한달에 한번씩 쉴 수 있다.

파주에는 러시아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여성들은 다른 클럽을 다닐

수가 없다. 마마상은 여성들이 다른 클럽 손님을 자기 클럽으로 데리고 올까 꺼려하고 있다. 만일 마마상이나 클럽주인을 거역하면 그들은 ‘대기중’에 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달에서 3달간을 클럽에 갇혀있게 되지만 일을 할 수 없어 돈을 받지 못한다.

문제점 및 우려사항

대개의 여성들은 속아서 사인을 하여 러시아에서 계약할 때 들은 것과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된다. 러시아에서의 계약서는 러시아어로 씌어졌으나, 한국에서의 계약서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씌어져 있다. 그들은 알지 못한 채 완전히 다른 두개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는 것이다.

클럽에서 일하지 않는 여성들

대부분의 러시아여성들은 미혼이며 미군 남자친구와 살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도망을 나온 여성들이다.

▶ 자나

자나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왔으며 26살이다. 그녀는 이슬람교도이며 한국에 오기 전에 대학을 다녔다. 그녀는 2003년 3월 17일 한국에 도착하여 동두천의 클럽에서 일하였는데, 40살 된 키르기스스탄 남자가 도망치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가 그녀에 대하여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 그는 동두천의 클럽에서 그녀를 구출하여 파주의 공장에 취직하도록 도와주었지만, 그녀를 맘대로 대하며, 여권을 빼앗고, 공장 임금을 가져가고,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공장에 같이 일하던 필리핀인 여성의 도움으로 그녀는 그 키르기스스탄 남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 필리핀인 동료는 한국인과 결혼한 자신의 언니에게 자나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여 언니의 집으로 데려가 보살펴주었다.

클럽에서 겪어야 했던 모든 문제와 스트레스, 그리고 같은 동포에게 갇혀 지내야 했던 모든 일들이 자나의 건강을 해쳤다. 목뒤에 혹이 생겼는데 암이

라고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러시아로 돌아가 그곳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 나디아

나디아는 러시아출신의 25살 여성이다. 그녀는 2002년 12월에 한국에 도착하였다. 그녀는 텍거리의 스마일 클럽에서 일을 하였다. 그 클럽이 문을 닫게 되자 그녀는 캠프 호베이에 주둔한 43살 된 미군과 동거하게 되었다. 그녀는 일을 하지 못하였기에 전적으로 그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그녀와 동거하고 있는 미군은 결혼한 것으로 보이는 그녀의 미래에 대하여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녀는 고향에 있는 딸에게 돈을 붙여주려고 일을 하려고 했고, 동거남은 그녀의 경제적인 곤란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나디아는 파주로 가서 일을 하기로 하였고, 핸드폰공장에서 얼마간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리 길지는 못하였다. 약 두 달간 일을 하고 난 후 러시아로 되돌아갔다.

▶ 레나

레나는 2002년 6월이나 7월경 한국에 왔다. 그녀는 동두천의 웨스트라인 클럽에서 일을 하였다. 7개월간 일을 하였으나 그동안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자 도망을 나왔다. 그녀는 송탄으로 가서 일을 하였다. 그러나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텍거리로 옮기게 되었다. 웨인 클럽에서 도망을 하였을 때 여권은 매니저가 가지고 있었다.

레나는 또한 텍거리의 스마일 클럽에서 일하였다. 그 클럽의 관행은 매우 가혹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2차를 나가고 VIP룸에 들어가도록 강요당하였다. 임신되지 않기 위하여 IUD를 몸에 집어넣어야만 하였는데 이는 무척 고통스런 일이었다.

레나는 이곳에서 도망을 한 후 방글라데시인 남자친구와 같이 살았다. 그런데 나디아가 전화를 하여 자신과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동두천 셋방에 같이 살자고 하였다. 그녀는 나디아와 4개월을 같이 살며 나디아의 미군 남자친구에게 많이 의지하게 되었다. 레나는 파주의 핸드폰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 10월에는 외국인 등록을 하였다. 비록 일은 힘들어도 그녀는 기쁘게 일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

▶ 리디아

리디아는 러시아에서 왔으며 29살이다. 그녀는 파니 클럽에서 일을 하였으나 2차를 나가라고 계속 강요하자 도망을 나왔다. 캠프 케이시에 근무하고 있는 미군남자친구는 동두천의 작은 여관에서 그녀를 일주일동안 숨겨주었다.

그녀는 두레방에 찾아와 미군남자친구와 결혼할 수 있도록 여권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매니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여권을 줄 테니 대신 1만 2천 달러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한국의 계약서에는 1년간으로 되어 있지만 자신이 사인한 러시아에서의 계약에 의하면 6개월간이기 때문에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리디아가 계속 주장하자 가격은 내려갔다.

현재 그녀는 민간쉘터에서 지내고 있으며 두레방은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녀의 미군남자친구는 그녀가 살 방을 빌리려 하나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소를 나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남자친구가 단지 10달러만을 주었기 때문에 두레방은 그녀에게 얼마간의 생활비를 주고 있다.

생활 환경

쇼핑을 하거나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낸다.

문제점 및 우려사항

러시아 여성들이 클럽에서 도망을 하면 무척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여성들은 클럽에서의 생활이 무척 고되더라도 계약서대로 이행하는데, 러시아에서 한번 계약을 하면 법적으로 이행을 해야만 한다고 배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클럽의 환경이 참을 만하면 대개의 여성들은 그대로 지내기를 원하지만 대신 그들에게 다른 일자리가 대안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러시아여성들은 영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화카드나 그 외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더구나 러시아 여성들은 한국에서 존재하는 마피아를 두려워하여 신고하지 못한다. 한국에서 러시아대사관 이외에, 시민단체에서 이들 여성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러시아인 상담원을 찾기는 힘들다.

3) 한국 여성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

▶ 이수진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다 결혼을 하였다. 결혼생활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자 이혼을 하였다. 가게를 운영하다 사기를 당해 빚이 많이 생기자 그 빚을 갚기 위해 술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인천에 있는 한국인 지역의 술집에서 일을 하다가 올 여름부터 파주의 외국인전용클럽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클럽은 두 번째 클럽이다.

클럽주인에게는 4백만 원의 빚이 있다. 월세 보증금과 생활비로 들어간 돈이다. 어머니를 부양해야 함을 물론 우울증, 거식증 공황장애 등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본인의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서 빚을 갚을 수가 없고 점점 빚이 늘어만 가므로 클럽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 벌금을 많이 무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빚도 있고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말을 못하고 있다. 클럽 주인은 빚을 빨리 갚지 않으면 이씨를 다른 클럽으로 보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이씨는 당장 빚을 갚는다 해도 어디든 갈 곳이 없는 게 큰 걱정거리이다.

문제점 및 우려사항

가까운 곳에 머물 수 있는 쉼터가 있으면 클럽생활을 정리하기가 훨씬 편하겠지만 가까운 곳의 쉼터가 없으므로 선 듯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피해여성들을 심리적 정신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신경정신과나 치류프로그래밍 센터 등이 필요하다.

클럽에서 일하지 않는 여성들

▶ 심미례

현재 68세로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녔다. 한국에서는 한번도 학교에 다닌 적이 없으며 20세가 넘어 교회와 야학에서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을 배웠다. 세 명의 미군과 동거를 하였으며 동거했던 미군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첫째와 막내아들은 현재 미국으로 갔으며, 둘째인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딸이 있어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되지 못했고, 다리가 많이 아파 높은 곳에 올라다니는 것도 힘든 형편이다.

▶ 전희수

현재 61세로 21세 된 아메리시안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2년 전에 척추수술을 받았고 1년 전에는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 모든 기관이 다 안 좋아 병원 치료를 많이 받고 있으며 몸이 많이 쇠약하다. 생계비 지원을 받지만 그래도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므로 늘 돈 때문에 걱정이다. 또한 하나 있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 전체 고민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아메리시안인 아들이 무척 소심해서 차별 많은 한국사회에서 혼자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읽으며 마음을 의지하고 있다.

▶ 김옥희

올해 69세로 무학이며 10년 전 중풍으로 쓰러진 뒤 몸이 반신마비가 되었다. 중풍으로 쓰러지기 전에는 10대 후반부터 3, 40년 동안 기지촌에서 생활하였다. 혼자 딸 한 명을 키우다 딸이 중학교에 갈 때 오빠 집에 맡기면서부터는 오빠의 가족들 생계까지 모두 책임졌다. 오빠 두 명을 결혼시켰고, 딸도 결혼시켰고, 조카들도 모두 공부시켰다.

중풍으로 쓰러진 이후에는 더욱 어렵게 생활하다가 3년 전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되어 그 돈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몸이 불편해서 연탄불을 갈고, 쓰레기 버리고, 밥을 해먹고 하는 일상적인 일들이 매우 어렵고 병원에 혼자 가는 것 또한 어렵다. 낙태수술을 많이 하고 몸을 돌보지 못해서이지 온몸은 아주 쇠약하고 많이 아프다. 불편한 몸으로 외롭게 혼자 생활하는 게 제일 큰 어려움이다.

▶ 최주영

고아출신이며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학교를 다녔다. 미군과 두 번의 동거경험이 있으나 결혼을 한 적은 없다. 전국의 기지촌을 돌며 9년 동안 클럽에서 일을 했다. 29세 때 마음을 바꾸고 클럽생활을 정리했다. 그 후 공장일과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돈을 모았다. 지금은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한달에 두 번 쉬지만 팔다리가 아프고 체력이 달려서 계속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

▶ 최진희

올해 52세로 서울이 고향이다. 대학입학을 앞두고 친구를 만나러 파주에 왔다가 놀러 앉아 클럽 DJ를 시작으로 클럽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뒤 카운터도 보면서 클럽일을 하다가 알게 된 미군과의 사이에 아들을 한명 낳게 되었다. 올해 22세된 아들과 단둘이 함께 사는데 건강이 워낙 안 좋아 일은 전혀 못하며 거동하기조차 힘들다. 류마치스, 관절염이 심하며 허리도 안 좋고 방광염 등 매우 많은 병들을 가지고 있다. 혼자서는 한 시간의 노동도 힘든 상태이다. 기름보일러 방에 살고 있으므로 월 2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고 기름값도 만만치 않다.

20대의 젊은 아메라시안이 안정적으로 취직해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마당치 않고, 아들이 음식점 아르바이트로 벌어오는 돈 40만원으로 방세와 생활비 병원비 등을 충당하기는 너무 어렵다. 어려우면 친구들에게 빌려 써서 빚도 조금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되면 좋겠지만 노동능력이 있는 아들이 있다며 거절당했다.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문제점 및 우려사항

아메라시안 자녀가 있더라도 생계비 지원과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 보장법 수혜자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위한 정기적 자원봉사자 지원 활성화하고 상담과 지원활동을 벌일 수 있는 현장상담소개소가 필요하다. 그밖에 옷이나 쌀, 김치 같은 생필품의 지원도 매우 필요하다.

Ⅳ. 정책제안

올해 경기북부의 파주, 동두천, 의정부 기지촌지역으로 상담지역을 넓히며, 기존보다 다양한 많은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 여성들이 공통적인 특징은 나라를 구분하지 않아도 모두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착취 고리에 얽혀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난한 가정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기지촌 성매매산업에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만난 러시아와 필리핀의 여성들 대부분은 자신이 버는 돈 중 상당부분을 본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하고 있었다. 자신의 아이나 남편이 있는 여성들은 자신의 아이나 남편뿐 아니라 부모와 형제들까지 돌보고 있었다. 독신인 경우는 부모와 형제들 앞으로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기지촌 성매매에 유입되어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은 앞의 자료에서도 보듯이 임금체불이나 감금, 벌금, 여권압류, 주스판매 할당량 강요, 2차 성매매 강요, 욕설이나 신체적 학대 등 각종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은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신고를 하고 싶어도 강제출국이 두려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혹시 용기를 내어 클럽을 탈출한다 하여도 경기북부에는 쉼터가 없어서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머물 수가 없다.

미군과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는 남편이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가 있어도 언어문제 때문에 부대 내의 상담소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것은 한국여성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여성들을 최대한 상담하려고 하였으나 세 명의 상담원으로 많은 수의 여성들을 다 상담하기란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의료보험이 없어 보험혜택을 받기도 어렵지만 돈을 지불한다 해도 언어문제로 인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것도 큰 문제였다. 한국여성들의 경우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는 빚 문제로 이동이나 전업이 자유롭지 못하였다.

그리고 은퇴한 나이든 여성들의 경우는 생계를 꾸리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아메리시안 자녀와 살고 있는 나이든 여성들의 경우는 자녀가 노동능력이 있다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와 함께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1. 한국 정부

- 1) 미 국무부 및 유엔에서 채택한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2000년)'을 받아들이고, 인신매매는 다국적 범죄임을 인정하며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국내법 제정해야 한다. 또한 법제정시 국제 성 인신매매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한 특례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관련 국가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3)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매매 알선등행위의 처벌방지에 관한 법률안'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와 실효성 있는 법집행이 필요하다.
- 4) 여성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위탁계약을 맺고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무료법률구조사업에 통역 상담원을 확충하여 외국여성들에게 자국어 상담서비스를 통한 실효성있는 무료법률지원이 필요하다.
- 5) 현재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일하는 외국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 6) 한국여성 중 클럽을 탈출한 경우 한시적으로 생계지원비 지급이 필요하다.
- 7) 인신매매, 성매매 문제와 관련된 공무원,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 학교나 군대에서의 교육을 통한

의식을 확산해야한다. 일반 국민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8) 피해여성들을 위한 중·장기 쉼터를 확충하고, 심리상담, 치유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한다.
- 9) 탈출한 여성들을 위한 재활사업장을 확충한다.
- 10) 피해여성들을 위한 의료시설을 마련한다.
- 11) 일관성 있는 이주노동자 정책마련과 집행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고용기회를 확충한다.
- 12) 외국인 피해여성을 위한 합법적인 비자 발급 지원을 지원하고,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

2. 경기도 제2청사

- 1) 탈출한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한 전용쉼터를 마련하고 상담과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 2) 탈출한 여성들의 전업 교육을 위한 재활사업장을 열어야 한다.
- 3) 여성들이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병원, 특히 산부인과, 치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정신과 등이 필요하다.
- 4) 경기북부지역에 외국여성을 위한 쉼터(단기보호쉼터/중·장기쉼터)를 마련이 필요하다.
- 5) 현장상담소 확충과 상담원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파주와 동두천 터결이에는 여성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담소가 한 개소도 없어 매우 시급하다.

6) 관련민간단체에 대한 지원확충과 행정력을 이용한 관련기관, 특히 경찰과 검찰의 협조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7) 인신매매, 성매매 문제와 관련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경기도민의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캠페인, 홍보사업을 확충한다. 특히 학교나 군대에서 인신매매, 성매매 문제에 대한 교육과 양성평등의식 교육을 강화한다.

8) 상담원들의 원활한 상담과 신변보호를 위해 클럽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한다.

3. 필리핀, 러시아 등 관련 대사관

1) 각 해당국의 자국 내 고용기회 확충은 물론 특히 여성에 대한 지원과 고용기회를 확충해야 한다.

2) 해외취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및 불법취업과 인신매매에 대한 위험성 홍보를 활성화한다(러시아에서는 한국의 유흥업소에 취업하면 성매매피해자가 될 위험도 있다는 텔레비전 광고를 공영방송에서 가끔 내보낸다).

3) 자국 내에서 인신매매 방지법안을 마련한다(필리핀은 올 5월 인신매매 방지법안이 통과되었다).

4) 해외취업자에 대해 해외에서 착취와 인권침해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시스템을 강화한다.

5)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여권, 비자문제, 안전한 귀국에 협조한다.

6) 자국인이 취업해 있는 사업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7) 피해자 귀국시 심리치료와 직업교육, 일자리 제공을 지원한다.

4. 미군 당국 및 미국정부

1) 미군 성구매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한다.

2)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미군의 성구매 금지에 대한 교양교육 규정 및 성구매자의 처벌규정 포함하고, 법 위반자에게는 한국의 강제적 법집행 권한이 있음을 명시한다.

3)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보상한다.

4) 미군 아버지를 둔 아이들의 양육비에 대한 개인과 미군당국의 책임을 명시하고,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소유재산이나 월급에 대한 강제 집행 권한 명시한다.

5. 민간단체

1) 민간단체간 또는 관-민간 간의 협조체제 강화로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2) 피해자 상담사례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문제제기와 방안을 촉구한다.

3) 송출국 민간단체와 연대를 강화하여 피해자 사례에 대한 정보와 활동가를 교환하고 사후처리에 협력한다.

4) 성매매 방지에 대한 감시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5) 인신매매 및 성매매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와 정부기관의 협력 강화와 공동 매뉴얼을 개발한다.

V. 부 록

1. 상담 사례

1) 필리핀 여성 1 : 조니 (파주)

조니는 25세로 2003년 1월 31일, 필리핀의 세부(cebu)에서 한국으로 왔다. 그녀는 필리핀에서 ASH Manpower International Services 라는 공인된 송출업체를 통하여 E-6비자를 받아서 왔다. 그 업체는 필리핀의 파사이(pasay)시, 발랑타스 가에 위치하고 있다. 필리핀 송출업자는 조이 안콘(Joy Anqcon)이었다. 그녀는 동두천의 이글즈 클럽에서 일을 했는데, 그 클럽은 필리핀 대사관에서 확인되었고 그녀를 책임지고 있는 업체는 아낙프로모션의 안씨였다. 클럽이 어떤지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듣긴 했지만, 그녀는 클럽에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국으로 떠나기 하루 전에서야 알게 되었다.

2003년 1월 31일부터 2003년 5월 29일까지 이글즈 클럽에서 일하는 동안, 매일 밤 음료수를 20잔씩이나 팔아야 했기 때문에 그녀는 클럽에서 도망을 쳤다. 20달러나 하는 음료수를 팔아서 받게 되는 커미션은 3,000원이었다. 클럽에서는 할당된 양만큼 음료수를 팔지 못하면 클럽 문을 연 시간부터 새벽 4시까지 서 있어야 하는 벌칙이 있었다.

그녀는 한국으로 오면서 드는 경비를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달 월급에서 28만원씩을 떼어 지불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그래서 계약상의 월급은 80만원이었지만 실제로는 52만원(400달러)만을 받기로 한 것이다. 조니는 2003년 2월에 100달러, 3월에 400달러, 4월에 400달러, 5월에 400달러를 받아 총 1,300달러를 받았다. 클럽에서는 2차를 하고 있었으나 남자친구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필리핀대사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불법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아칸소사스 출신의 32살인 JWD하사가 이글즈 클럽에서 조니가 만난 첫 손님이었다. 그는 캠프 넘블에 속해 있었다. 그는 그녀와 같이 자고 나서야 자신이 결혼을 하였고 부인은 하와이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었다. 법률적으로는 결혼상태이지만 그는 이혼을 원하고 부인은 원치 않는다고 하였다. 한국인인 그의 부인은 이전에 클럽에서 일했으며 결혼 이후에도 하와이의 클럽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조니는 이미 그의 아기를 임신한 지 4개월 쯤이었다.

그러던 중 조니는 JWD하사가 또 다른 클럽의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자신의 첫아기를 지우기로 결심하게 된다. 필리핀여자친구가 있는 필리핀인 미군의 도움으로 약과 함께 독한 술을 마셔서 결국에는 낙태를 했다.

2003년 5월 29일 클럽에서 도망친 이후에 그녀는 수색에서 친구와 함께 지내다 친구의 도움으로 2003년 7월 29일 수색의 앨범공장에서 15일을 일했으나 돈을 받지 못하였다. 그녀는 그 당시에 계속 JWD하사와 연락을 하였고 매주 이태원에서 만났다. 그리고 다시 임신을 하게 되어 그 사실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JWD하사는 현재 자신의 부인이 아기를 “가지지 않으려 하거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조니가 임신하고 있는 아기를 낳기를 원하였다. 그리고 그는 한국인 부인은 단지 돈 때문에 자신과 결혼한 것이라며 그래서 이혼을 원한다고 이야기 했다. 그는 같이 살 방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조니와 결혼하려는 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약혼반지까지 사주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는 못했다. 그는 병원비를 지불한 적도 없었다. 2003년 8월 그녀는 파주로 옮겨와 제분소에서 일하는데, 임신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남자의 연락은 뜸해졌고 전화나 할 뿐이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보다는 클럽에 다른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공장의 한 필리핀 여성이 매니저에게 조니가 임신한 사실을 말하게 되고, 그녀는 해고당하게 되었다. 그녀는 JWD에게 전화를 하여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돈을 줄 테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제 조니는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이 임신한 상태였다. 그녀는 아기를 낳을 때까지 일을 하며, 고향에 있는 가족과 임신중인 아기를 위하여 절실히 돈을 벌기를 원하였다.

조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캠프 넘블에서 JWD의 상관과 만나 조니와 아기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을 때, 그 상관은 매우 협력적이었으며 직접 말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JWD와도 만나 조니의 임신사실과 그가 맡아야 할 책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아기가 태어나면 DNA 검사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그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아기가 태어나면 DNA검사를 하고 자신의 아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다음과 같은 책임을 다하기로 증명하였다. 1) 임신과 출산기간에 쓴 모든 의료비를 지불한다. 2) 2004년 4월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18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300달러를 매달 지불한다. 3)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미대사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4) 아기를 위하여 미국여권을 만들어주어 미국과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한다.

JWD는 증명서에 사인을 하여 캠프 케이시의 JAG사무소에서 공증을 하였다. 이 증명서는 DNA검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세 가지 방법을 열거 하였다. 1) 한국의 필리핀대사관에서 자격 있는 의사를 통해 혈액샘플을 뽑아 미국으로 보낸 후 그 결과를 필리핀대사관에 통고 한다 2) 조니와 아기가 일본의 오키나와로 가서 일본과 루이지아나 네브라스카의 변호사인 아네트 에디 켈러건(Annete Eddie-Callagain)씨를 만나 그녀가 DNA 검사를 총괄하게 한다. 3) 아기가 태어나면 아네트를 한국으로 초대하여 한국에서 검사를 한다. JWD하사, 조니, 그리고 아기의 DNA검사비 600달러와 비행기 표를 포함하여 가격을 지불한다.

조니는 고향으로 되돌려보내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글스 클럽에서의 벌칙에 대해서 필리핀 대사관에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리고 실제로 클럽에 신입으로 있었을 때, 아낙프로모션은 필리핀대사관에서 허가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남자친구와 결혼하기 위하여 도망을 가면 이전 그러했던 다른 여자들처럼 고향으로 돌려보내질 거라고 자주 들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관행은 공공연한 것으로 필리핀대사관은 클럽에서 도망친 여성에 대하여 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만일 이 여성들이 다른 형태의 비자를 받아서 클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대사관에 기꺼이 신고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을 가고 숨어서 일자리를 찾게 된다.

최근 조니는 파주의 핸드폰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춘천의 미혼모를 위한 센터는 6개월 이상 임신부를 받기 때문에 아직 그곳에 가지 못하고 있다. 한편 JWD하사는 돈을 잘 보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만나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는 언제나 변명을 하며 이를 피하고 있고, 그래서 조니는 자신이 일을 하여 돈을 모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일하기 힘들어진다면 춘천의 보호소로 가서 아기가 태어나는 2004년 4월까지 있을 예정이다.

2) 필리핀 여성 2 : L.C. (이태원, 파주)

L.C.는 2001년 2월 18일, 관광비자를 가지고 필리핀에서 직항으로 한국에 도착하였다. 필리핀을 떠날 때는 한국여성 두 명을 포함해서 총 세 명의 여성이 L.C와 동행하였다.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필리핀에서 만났던 한국인 직원의 형이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한 후, 그녀는 바로 부산으로 보내져 고용주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11개월을 부산에서 일을 한 뒤 서울로 와서 공장 일을 하였다. 그러나 가짜물건을 만든다는 고객의 고발에 의해 세관이 검사를 나와 2개월밖에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 후에 그녀는 가사노동자로 이태원에서 일을 하였는데 그녀의 고용주는 이태원의 춘화아파트에 살고 있는 미국인이었다.

그녀가 이태원에 살고 있는 미국인을 위하여 일하는 동안 용산에서 일하는 미군상사를 만났다. 그 상사는 같은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그녀와 로비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오는 그에게 그녀는 무뚝뚝하게 거절하였으나, 2002년 4월 어느 날 그는 그녀를 성폭행하였다. 그녀는 수치심에 싸여 이러한 사실을 같이 살고 있던 필리핀인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혼하고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그의 말에 설득 당하게 되었다.

2002년 9월의 어느 날 그가 아들 둘과 함께 용산 기지에 옮겨 살게 된 후에 그녀는 같이 동거하게 되었다. 그리고 4개월 후 그녀는 임신하였다는 것을

을 알게 되자 그는 아파트에서 그녀를 쫓아내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도록 MP나 출입국관리소에 고발하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그 집에서 쫓겨난 이후 새로 일하게 된 용산의 미군 고용주에게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 놓았다. 그러자 이 문제가 용산 부대의 CID(범죄 조사위원회)에 보고 되어 특별조사관인 켈리가 그녀를 조사하였으나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

L.C.의 사례는 2003년 5월 19일 필리핀 대사관에 제출되었고, 2003년 6월 11일 육군장교인 찰스 캠벨에게도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그녀의 사례는 미대사관에도 보고가 되었으나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다. 그녀는 마리아의 집의 도움으로 춘천시의 세이크리드병원에서 여자아기를 낳았다.

2003년 10월 8일 L.C.의 아기는 필리핀으로 보내져 숙모가 돌보게 되었으나 그녀는 계속 한국에서 아버지 없는 아기를 위하여 일하게 되었다. 아무런 금전적 도움도 주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간 그 상사는 아기를 엄마와 떼어놓으려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 그는 아기의 양육권을 포기하면 아기에게 미국시민권을 주겠다고 이야기한다.

L.C.는 미군부내 내의 탁아소에서 일하게 되었다. 한국이 2002년 월드컵을 치르며 될 즈음 외국인 미등록노동자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모든 미등록노동자에게 1년간의 체류자격이 부여되었다. 다행히도 그녀는 2004년 3월까지 체류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4년 이하 거주한 노동자에 대해서만 노동허가가 주어지는 법률이 통과되자 그녀의 비자는 소용이 없게 되었다. 그녀는 계속 미군부대에서 유모로 일하기를 원하나 새로운 노동허가를 받기위해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이 2003년 11월 15일 이후 본국으로 송환되리라는 뉴스에 접하게 되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게 되었다.

L.C.는 현재 핸드폰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고용주가 신청을 해주고 등록을 하여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녀는 계속 가족들에게 그리고 아기를 돌보고 있는 숙모에게 돈을 보내고 있다. 여전히 아기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기를 원하지만, 미국과 한국 간에는 아기 양육에 관한 아무런 협정도 없기 때문에 그녀를 비롯한 많은 여성들은 아기 아버지가 기꺼이 돈을 보낼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3) 필리핀 여성 3 : 바네사 (동두천 덕거리)

바네사는 1976년 6월 14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출신으로 현재 27살이다. 가톨릭 가정에서 자란 그녀가 일본에서 일하기로 결심하였을 때는 무역학과 2학년생이었으며, 한국에는 2003년 1월 29일 도착하였다.

그녀는 일본 세 지역의 유흥업소에서 일하였다. 1999년 3월부터 1999년 9월까지 일본의 구마현에 살면서 한달에 400달러가량을 벌었고, 2000년 3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는 사이타마현에서 한달에 600달러를 벌었다. 그리고 2001년 11월 11일부터 2002년 2월 13일 까지 오끼나와에서 300달러를 벌었다.

한국에서 그녀는 덕거리의 엑스존 클럽에서 일했었다. 그녀가 다시 계약을 갱신하게 된 이유는 만일 그녀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같이 일하던 다른 9명의 여성들을 필리핀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라는 클럽의 주인의 말 때문이었다. 그녀는 동료들이 계속 돈을 벌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클럽의 주인이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3년 7월 23일 그녀가 속한 프로모션 직원은 그녀와 동료들 엑스존 클럽에서 빼내었다. 그들은 프로모션 직원의 집에 거주하면서 월급을 주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2003년 7월 30일 그녀와 동료들은 엑스존으로 되돌아와서 다시 일을 시작하였으나 클럽 주인은 프로모션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클럽에서 나가 도망가라고 했다. 그녀는 프로모션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매니저에게 직접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2,500달러나 되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가 되었고, 그래서 7월의 봉급을 먼저 지불하겠다고 했다.

한국인 매니저인 안씨를 통하여 아낙프로모션과의 6개월 계약을 끝내고 난 후 그녀는 캠프 호베이에 주둔한 미군병사와 결혼하였다. 남편은 22살이었다. 그녀가 2003년 8월 9일 클럽을 그만둔 후 그 둘은 같이 살게 되었다.

그녀는 현재 전화카드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결혼도 하였지만, 매니저는 계약을 갱신하라고 강요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6명의 동료들을 필리핀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동료들은 가족을 부양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녀는 계약을 갱신하였다.

4) 필리핀 여성 4 : 콜리 (의정부)

콜리는 필리핀 누아바 에시자(Nueva Ecija) 출신으로 현재 24살이다. 학창 시절 그녀는 매우 인기가 있었고, 그녀는 고등학교시절 학교 밴드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졸업 후 17세에 결혼을 하여 남자와 여자아이를 낳았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웨이트리스로 주급을 받으며 일하였다. 그러나 두 명의 아이가 생기고 남편이 돈을 잘 벌지 못하자 더 돈을 벌어야만 하였다. 그녀의 친구가 한국의 일자리에 대해 말하여 주고 업체를 소개하여 주었다. 필리핀 업체는 케손(Quezon)시의 파세이(Pasay)에 있는 에시프로모션으로 업주는 이멜다 라그보(Imelda Lagbo)란 여성이다. 경비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대신 앞으로의 월급에서 제하기로 하고, E-6 비자로 여권에 실명을 사용하여 2002년 7월 13일 한국 직항으로 오게 되었다. 그녀는 의정부에 있는 봄 클럽에서 일하였다. 당시 8명이 같이 일하였으나 모두 클럽에서 도망을 쳤다. 이 클럽은 음식을 주지 않아 굶게 하였으며, 그녀와 동료들은 외출을 하거나 다른 필리핀 친구를 만날 수도 없었다.

콜리는 클럽 내에서 시키는 나쁜 일들 때문에, 그리고 임신하였기 때문에 클럽에서 도망쳤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콜리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경제적으로 도와주었고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모든 필리핀의 서류를 위조하게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2003년 5월 19일 합법적으로 미 대사관에서 결혼을 하였다. 그녀는 단지 11개월 일한 후에 결혼하였다.

그녀가 결혼한 사람은 미국 아이오와 출신으로 캠프 스탠리에 주둔한 23살의 미군이다. 그들은 고산동의 작은방에 세 들었다. 미군과 결혼한 대다수의 여성들이 행복해하고 행운이라고 믿는 듯하지만 콜리는 그 반대였다. 그녀는 클럽에서 일하는 편이 더 자유롭고 원하는 대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는 남편에게 돈을 보내곤 하였다. 현재까지 남편은 그녀가 한국에서 결혼하고 임신하였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녀는 여전히 일하고 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부모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뿐이다.

한국에서 결혼한 미군은 결혼 후 완전히 변하였다. 필리핀인과 결혼한 다른 미군들은 부인을 동반하여 클럽에 가곤 하였으나, 그는 친구와 가려고 할 뿐이었고 콜리는 혼자 집에 남아 있어야 했다. 이에 관하여 감정을 털어놓으면 싸움만 하게 될 뿐이었다.

그리고 2003년 9월 초 남편은 더 이상 집으로 오지 않고 부대에서 지냈다. 그는 완전히 그녀를 무시하고 더 이상 그녀를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부대 내의 가족 변호사인 켈리 클락(Kelly Clark)과 이야기 하였는데, 그녀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다루고 있는 사회사업가인 러스 브랜드린(Russ Brandlein)을 소개하였다. 콜리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부대 안이나 주변에서 상담을 하길 원하였다. 러스는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베이트를 소개하였다. 그녀는 그 부대의 가족상담원이었다. 그러나 러스는 콜리가 남편의 상관에게 먼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하였고, 이 단계에서 콜리는 관계를 청산하고 아이양육비를 지원받기를 원하였다. 콜리에 의하면 남편은 아기만을 원하는 것 같았고, 남편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었기에 매우 마음이 상해하였다.

콜리는 상관에게 연락하여 남편이 몇 주째 집에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상관은 남편과 이야기 한 뒤 '남편이 잠시 혼자 있고 싶어 한다' 고 말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고, 남편은 상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2주가 지난 후 2003년 9월, 둘은 다시 심한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그녀를 침대로 던지고 담요로 덮어 거의 질식할 뻔하였다. 이 사건은 이른 아침에 발생하였는데 그녀는 친구의 남편이 MP인 것을 생각해 내었다. MP는 집으로 찾아와 남편을 연행하여 갔고, 그들은 2주간 떨어져 있게 되었다. 그들 사이의 대화나 필요한 일들은 담당인 병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녀와 남편은 용산의 캠프케이시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관계는 조금도 좋아지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상담을 받고 있지만 남편은 아무런 가망도 보이지 않고 있다. 콜리는 2004년 1월 아기를 낳을 예정이다.

5) 러시아 여성 1 : 나탈리아 (의정부)

나탈리아는 하바로프스크에서 온 29세의 여성으로, 아들과 딸,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탈리아는 첫 남편과 아들 하나를 낳고 사별하였고, 두 번째 남편과 딸을 낳았다.

두 번째 남편은 법학도였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무척 좋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친구와 만나 술을 마시며 보냈고 가족을 소홀히 하였다. 그녀는 일을 하며 학교에 다녀야만 했는데, 미용사로 일하면서 번 돈으로 집세, 식비, 그리로 학비를 대야만 했다. 그녀는 8년 경력의 미용사로, 한달에 약 200달러 정도의 돈을 벌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러시아에서 그녀는 친구와 함께 일본으로 보내주는 송출업체에 신청을 하였고, 친구는 일본에 가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빨간 머리에 주근깨가 많아 선택되지 못하자 다른 친구가 한국으로 보내주는 업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한국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친구는 돈을 벌려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지 골라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고 그녀는 한국 송출업체에 신청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하루 이틀 내에 한국으로 떠나게 될 것이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나탈리아는 송출업체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알리아 블라디미로브나(Alia Vladimirovna)라는 직원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2002년 10월 10일 E-6비자로 하바로프스크에서 한국으로 곧바로 오게 된다. 그녀는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10달러, 비행기표로 250달러, 그 외 서류준비로 80달러를 지불하였다. 그녀는 여권에 실제 이름을 사용하였고 한국의 매니저는 문씨였다.

한국에 도착하여 나탈리아는 군산의 O클럽에서 석 달 동안 일하며 한달에 300달러씩을 벌게 된다. 그 후 매니저는 그녀를 의정부의 B클럽으로 옮겼고, 그 곳에서 6개월 동안 일하며 한달에 400불을 벌었다. 계약서에 의하면 그녀의 월급은 500달러였기 때문에 그녀는 속았다고 생각했지만, 러시아에 있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는 그런대로 나쁘지 않은 액수였다.

군산에서 의정부로 옮긴 것은 매니저가 결정한 것이며 그녀의 선택은 아니다. 그녀는 한달에 하루밖에 쉴 수 없었다. 매니저와 클럽주인으로부터 받은

학대는 심한 것이었다. 야단치고, 고함지르고 소리치고, 때렸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하고, 그녀의 물건을 압류하기도 하였다. 팔아야 하는 술 할당량은 없었지만 많이 팔지 못하면 벌금을 물었다. 그녀는 돈을 벌고 싶었기에 많이 팔았다. 20불을 하는 술을 팔면 커미션으로 2불을 가질 수 있었다. B클럽의 여자들은 2차를 나갔으나 그녀는 나가지 않았다. 그 클럽의 손님들은 모두 미군이었으나 통금 이후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받아들였다. 러시아, 필리핀 그리고 한국여성들과 같이 일을 하였다.

B클럽에서 필리핀인과 러시아인은 각기 다른 숙소를 이용하였고, 군산과 의정부에서 각기 2번씩의 건강진단을 받았다. 자유시간에는 쇼핑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두레방에 찾아와 영어를 배우거나 미술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한국인매니저는 그녀에게 욕을 하며 러시아로 돌려보내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했고, 결국 나탈리아는 두 달이나 월급을 받지 못한 채 클럽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매니저가 그녀를 공항까지 데리고 가서 월급을 줄 수는 없지만 러시아로 가는 경비는 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았고 더 일하고 싶다고 했지만 매니저는 그녀를 공항에 혼자 내버렸고, 그녀가 혼자 B클럽으로 되돌아와 짐을 가져가려 하자 클럽주인은 매니저가 모든 것을 공항으로 가지고 갔다고 말하였다. 매니저는 그녀가 도망쳤다고 허위신고를 했지만, 실제로 매니저가 그녀를 도망치게끔 만든 것이었다. 그녀는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클럽에서 나와 친구의 도움으로 수원의 램프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나탈리아는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자신은 러시아로 되돌아가기 전 한 달 동안만 일하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하였다. 한달이 지난 후 공장장은 2주를 더 일해 달라고 청하였고 그녀는 노동허가 등록을 해주지 않으면 러시아로 떠나겠다고 대답하였다. 공장장은 이에 동의하였지만 등록을 해주지 않고 한 달 반의 월급도 지불하지 않자, 공장을 떠나려 하였다. 공장장은 줄 돈이 없다고 말할 뿐이었다. 그녀는 돈을 줄 수도 없으면서 왜 계속 일하라고 하였는지 물었다.

그녀는 두레방에 찾아와 체불임금을 상담하였다. 공장에 전화를 하자 그녀에 대한 아무런 서류도 없다고 하였고, 출입국관리소에는 아예 등록이 안 되

어있었다. 공장장은 그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떠났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다른 동료들도 노동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등록해주지 않자 공장을 떠났다.

그녀는 출입국관리소를 찾아가 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지 알아보았다. 출입국관리소의 직원의 말에 의하면 그녀가 클럽에서 도망을 쳤다고 매니저가 신고하였는데, 일단 도망을 한 것으로 신고가 되면 블랙리스트에 오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소의 기록을 조사하면 등록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녀는 한국인 매니저가 이런 식으로 취급한 것에 매우 분노하였다. 한국에서 겪은 것이라고는 학대와 안 좋은 일 뿐이라고 하였다. 그녀는 아이가 둘이나 있고 러시아에 돈을 보내야만 하였다. 그녀는 러시아를 떠날 때 겨울 옷을 모두 친구에게 주어버렸다. 충분히 돈을 벌어서 새 옷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그녀는 이러한 상태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에 남아 계속 학대받고 이용당하는 것보다 러시아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였다.

나탈리아는 이혼이 확정되고 난 후 미군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어 하였다. 그는 러시아로 같이 가서 결혼하겠다고 하였다. 그녀의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에 있는 외국인노동자상담소에 사건을 의뢰하고, 수원시 공장을 방문하였지만 공장에서 임금을 받아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비자문제 때문에 빨리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사건을 위임하고 11월 2일 러시아로 돌아갔다. 현재 수원의 상담소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6) 러시아 여성 2 : 노리아 (동두천, 의정부, 파주)

노리아는 1978년 생으로 만 25세이며, 하바로브스크 출신이다. 그녀는 친구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되었고, 돈을 벌기 위해 하바로브스크에 있는 웨스트라인이라는 송출업체를 찾아갔다. 그리고 댄서로 일하기로 하고 한국에서 한

달에 4,500달러를 받기로 계약했다. 그녀는 한국에 오기 전에 러시아에서 3개월간 춤추는 것을 배웠다고 한다. 8개월 동안 기다려 비자가 나온 후, 2003년 4월 30일 E-6 비자로 한국에 왔을 때 공항에는 클럽주인이 마중을 나왔다. 노리아가 맨 처음에 가게 된 클럽은 동두천 덕걸이에 있는 S클럽이었다.

이 클럽은 조건도 일하는 것도 좋지 않았다. 클럽에서 내어준 작은 방에서 네 명이 함께 지냈는데 샤워기는 있었지만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아 자비로 사우나를 다녔다. 비키니를 입고 스트립쇼를 하도록 강요당했으며, 테이블에서 손님이랑 술을 마시게 했다. 노리아는 주인에게 그런 일들은 하기 싫고 계약서에도 없는 것이라고 항의했으나, 주인은 계약서는 러시아에서 맺은 것이고 여기는 한국이니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말하였다. 그녀는 2차도 강요당했는데, 손님이랑 만나겠겠다고 하면 주인은 그녀를 욕하고 때리고 벌금까지 내도록 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자기를 모욕하고 만지는 손님들을 접대해야 했다. 손님들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란, 한국인, 미군들이었다.

또한 주인은 춤을 출 때 필요한 비키니를 한 벌에 6만원씩 사면서 빗으로 올려 월급에서 제했다. 계약서 월급은 4,500달러였지만 실제로 받은 돈은 420달러였다. 그리고 여기에 주스커미션이 더해졌는데, 10달러 내지 12달러 하는 주스 한잔을 팔면 2달러는 노리아의 몫이고, 나머지는 주인의 것이었다. 2차를 나갈 경우는 2차비용 중 45%는 노리아의 몫이고, 55%는 주인이 가져갔다. 2차는 하루에 3번씩 나가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인에게 혼이 났다.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데리고 온 매니저에게 하소연을 해봐도 또 그와 비슷한 다른 클럽으로 데려다 줄 뿐이었다. 그 후 동두천의 H 클럽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그 클럽 주인은 전의 S 클럽보다는 좋았다. 손님들은 모두 미군들이었으며 밤에 2차를 강요하는 일도 없었다. 그러다 한 달 뒤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의정부에 있는 E클럽으로 옮겨졌다.

노리아는 의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미군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였다. E클럽 주인은 이 사실을 알고 노리아의 매니저에게 노리아를 데려가라고 했고, 그러자 매니저는 노리아를 다시 파주의 T 클럽으로 옮겼다. T클럽에서는 2차를 강요했다.

결국 그녀는 2003년 10월 21일 클럽을 도망쳐 의정부에 있는 친구 집으로 왔다. 9월 한 달과 10월 21일까지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여권도 매니저가 압류하고 있었다. 그녀는 6개월간의 계약기간이 다 끝나가기 때문에 임금을 받고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매니저에게 임금과 여권을 요구하자, 매니저는 위약금 5,000달러를 내면 여권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매니저가 이렇게 나오자 노리아는 10월 24일에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두레방을 찾았다.

일단 노리아를 서울에 있는 안전한 쉼터로 옮기고 용돈을 지원한 후, 그 다음주 월요일인 10월 27일부터 사장과 접촉하여 협상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사장은 막무가내였고 계속 거짓말을 하였다. 의정부 경찰서에도 도움을 청하였지만 출입국 관리소 소관이므로 의정부 경찰서에서 도움을 줄 게 없다고 하였다. 노리아의 비자기간 만료일이 10월 31일이었기 때문에 빨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불법체류 상태가 되어 매우 급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경찰청의 김강자 과장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사장과 만나 협상을 진행하였다. 다행이 그런대로 협상이 되어 노리아는 비자 만료일인 10월 31일 6개월의 비자를 다시 연장했고, 사장은 고용계약해지서를 써주었다.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무르면서도 클럽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었으며, 여권도 돌려받았다. 대신 그녀는 사장으로부터 한달 20일치의 월급을 안 받는 걸로 합의했다.

노리아는 그 후 남자친구가 훈련에서 돌아온 11월 초에 쉼터에서 나왔으며, 결혼 수속을 하고 방을 얻어 남편과 살고 있다. 그녀는 현재 SOFA 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비자가 나오는 대로 본국에 있는 다섯 살 된 딸을 데려올 계획이다.

7) 러시아 여성 3 : 소리나

소리나는 러시아 출신으로 올해 23세이다. 돈을 벌기 위해 하바로브스크에 있는 회사 프리덤을 찾아갔고 한국에서 댄서로 일할 수 있는 6개월짜리 E-6

비자를 받았다. 그리고 2002년 1월, 6명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처음으로 한국에 오게 된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매니저는 한국어로 된 계약서를 내놓으며 서명을 하라고 하였다. 그녀는 한국말도 모르고 통역도 없었기 때문에 망설였지만, 서명을 강요당했다. 그리고 나중에야 자신이 1년짜리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소리나는 처음에 의정부 Y클럽에서 8개월 동안 일을 하였다. 클럽에서 비키니를 입고 춤을 추었고, 주스할당량도 있었으며 테이블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도 마셔야 했다. 하지만 밤에 2차를 강요하는 것은 없었다. 평일에는 오후 6시에서 밤 12시까지 일을 하였고, 주말에는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하였다.

당시 클럽에는 12명의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가운데가 문 없이 나누어져 있는 큰방을 두 명이 함께 사용했는데, 더운물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한 시간 동안밖에 나오지 않았고 밤에는 보일러를 틀어주지 않아 무척 추웠다. 방에는 가스로 틀 수 있는 작은 히터가 있었지만 가스는 자비로 구입해야 했다. 한달에 한번 쉬는 날에는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했다. 춤을 추기 위한 의상과 소품은 자비로 사야해야 했는데, 한 벌에 65,000원하는 비키니를 최소 7벌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매일 매일 갈아입어야 했다. 아프면 약도 직접 샀고, 450달러의 월급을 주면서 1분 지각할 때마다 벌금으로 2달러씩을 월급에서 제했다.

음식은 클럽주인이 주었지만 너무 양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입에 맞지도 않아서 결국 사먹어야 했다. 주인은 항상 욕을 했고 밤에 2차를 나갈 것을 요구했다. 소리나는 2차를 나가지 않았지만 다른 여성들에게는 주인이 2차를 나가지 않으면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벌을 준다거나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하여 2차를 강요하였다. 2차비용은 30분에 100달러였다. 매니저는 모르는 척을 했다.

이렇게 8개월 동안 생활하다가 소리나는 주인과 싸우고 클럽을 나왔다. 매니저는 그녀를 한국인지역의 룸살롱으로 데리고 가서 1주일만 견디면 다시 데리고 가겠다고 했다. 의정부 Y클럽 주인은 그녀가 주인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다시 데리고 간다고 했지만 그녀는 사과하지 않았다. 룸살롱에서도 밤에 2차를 나가야 했지만 소리나는 싫다고 거절하였고, 1주일 후 의정부의 J

클럽으로 돌아와 세 달 넘게 일을 하였다. 그리고 클럽에서 만난 미군 남자친구와 2002년 12월에 결혼을 하였다.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고 주인에게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매니저는 모르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니저에게 계속 묵여 일을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한 달 뒤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서명해주고 비자를 연장해 주는 대가로 매니저에게 석 달 치 월급을 주고 나오게 되었다. 그 후 그녀는 임신을 했지만, 임신기간에 먹은 약물이 걱정이 되었고 남편도 아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미국인인 남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자주 다투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더구나 임신 5개월에 접어들고 있었지만 병원에서 한번도 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곧 병원에서 검진을 한 후, 아기는 건강하고 약은 장담하지 못하지만 괜찮을 것이라고 의사가 말해주자 한결 안심을 하였다. 그리고 검진과정에서 초음파를 통해 활발하게 움직이는 아기 모습을 본 그녀는 아기를 낳기로 결심을 하였다. 그 후로 그녀는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았으며 올 10월에 SOFA 비자를 받은 후에는 용산에 있는 미군병원에서 산전 진료를 했다. 그러나 출산 예정일을 한달도 남겨놓지 않은 10월 말 유산을 했다. 아기에게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녀는 크게 상심하였으나 지금은 많이 안정을 되찾았다. 혈액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용산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으나 12월 현재는 몸도 마음도 많이 건강해진 상태이다.

8) 러시아 여성 4 : 나디아

나디아는 1974년 생으로 만 29세이며,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출신이다. 그녀는 하바로프스크의 한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일을 했다. 한달에 200달러정도를 벌었지만 집을 산다거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넉넉한 돈은 아니었다. 그녀 주변의 많은 친구들은 한국에 2년 정도 다녀와서 번 돈으로 아파트도 사곤 했다. 나디아가 친구로부터 좋았던 곳이라고 소개받은 에이전시는 웨스

트 라인(West Line)이었다.

2002년 12월 9일에 여권을 발급받고, 모든 서류를 에이전시에 넘긴 후 춤을 배웠다. 그리고 2003년 4월에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옷을 좀 예쁘게 입고 화장하고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했다. 오디션에 붙으면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춤 강습을 무료로 받게 되어있었다. 춤 교습은 1주일에 3, 4번씩 넉 달 정도 받았다. 선발은 한국, 일본 등의 여러 매니저들이 에이전시로 와서 일할 사람을 고르는 식이었다. 두 명 중 한 명이 한국인이었다. 그들은 보통 클럽에서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지지만, 자신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절대로 생기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한국에는 6명이 같이 왔다. 오기 전에 사인한 서류의 내용은, 1) 공항에 마중 나온다 2) 항공료를 한국 회사에서 부담한다 3) 두 달에 한번 의료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회사 측 부담이다 4) 절대 성매매를 해서는 안 되며 섹스 파트너라고 하더라도 남자친구는 한두 명에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계약서에는 한국인 클럽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웨스트 라인 에이전시에서 계약하기로는 비행기표와 비자 값, 주거비 생활비 모두를 한국 회사에서 부담할거라고 했으며, 나디아는 월급과 주스값을 받는 거라고 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매니저가 와서 비행기 티켓, 비자, 의료비를 내야한다고 했고 이것을 다 계산하는 거라면서 첫 월급에서 40만원을 뺐다. 한국오기 전 서류에는 한국인 클럽이라고 했었지만 미국인 클럽으로 가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었다.

첫날 마마상이 하는 말이 따뜻한 물이 안나오니까 사우나의 한달 쿠폰을 끊어서 다니라고 했고, 첫 한달은 밖에 나가면 길을 잃어버린다고 문을 잠가 놓았다. 그 사우나 쿠폰에서부터 의상비 7만 원 등 하나하나 월급에서 깎아 내리기 시작했다. 보통 9시부터 11시 사이 정도였는데, 쉬는 날엔 좀 일찍, 평일에는 좀 늦게 사람들이 나타났다. 한국 사람도 종종 왔다. 매일 저녁 6시에서 새벽 2시까지 일했는데, 춤도 거의 안 추고 주로 테이블에 앉아서 손님 맞고 2차하는 일이 주된 업무였다. 그녀가 한국에 와서 배웠던 춤들을 공연해 본 적은 한번도 없었다. 배워보지도 않은 붓을 잡고 옷까지 벗으면서 춤을 추라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다. 주스커미션은 1,500원, 2차 커미션은 45%받기로 되어있었다. 5분 지각하면 4만원이 벌금이고, 대략 일주일에

40만원어치의 주스를 판매해야했다.

처음 미군만 왔을 때는 주스만 마셨었다. 그런데 영업정지로 문을 닫고 방글라데시 남자들이 처음 온 날,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도 대충 테이블에 앉아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마마상이 나디아를 잠시 불렀다. 그리고 같이 나가라며 종이를 주면서 사인을 하라고 했고 내용은 “2차는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나갔다”라는 내용이였다. 러시아어로 직접 이렇게 쓴 것을, 마마상 아들이 한국어로 번역해서 썼는데, 이걸 왜 하냐고 하자 누가 나중에 자기보고 억지로 시켰다고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냥 그것 때문이라고 했다. 나디아는 2차 나가면 경찰에게 걸리고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불법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성매매가 금지된다는 얘기는 아무도 해준 적이 없었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첫 한달은 너무나 끔찍했다고 한다. 한 달 동안 숙소에서 잔 적이 거의 없이, 매일 2차에 나가야만 했고, 주말에는 하루에 두 번 세 번 나가야 하기도 했다. 2차에서 돌아오면 씻기도 전에 다른 남자 기다리고 있다고 나가라고 했다. 첫날 그 싸인 한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혹시나 해서 쓰는 거라고 해 놓고는, 너희가 섹스를 잘해줘야 사람들이 계속 올 거니까 잘하라고도 했다.

나디아는 거의 매일 싸웠고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너무 심해지면서 매니저가 오기 전엔 일하지 않겠다고 나와 버리곤 결국 매니저가 와서 데리고 갔다. 동두천 D클럽에서는 3개월 정도 있었는데 처음 한달은 월급을 못 받고 나머지 2달 동안은 한달에 400달러의 월급은 받을 수 있었다. 2차 값은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라고 했다. 손님들이 그녀를 자주 찾아서 비싸게 20만원 정도를 내기도 했는데, 그래도 장부에는 15만원만 적고 그녀에게는 4만 5천원을 주었다. 그러나 그 돈이나 주스 값은 장부상에서 마마상이 직접 숫자를 쓰면서 깎고 즐기고 해서, 웃 산 것으로 다 삭감되어 전혀 받지 못했다.

나디아는 어렸을 때 약을 잘못 써서 피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혈액 알레르기 병이 있다. 이것이 여기서 의료 검사를 할 때 성병에 걸린 것처럼 나온 것 같았다. 지병이라서 그 병에 대한 서류도 가져와서 보여줬는데도 믿어주지 않고, 그녀보고 손님한테 성병을 옮았다고 하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 어느 날 돌팔이 의사를 데리고 와서는 주사를 놓았다. 이런 혈액 관련 병에는 주사를 잘못 놓으면 안 되는데, 주사를 맞고는 호흡 곤란이 와서 병원에 실려 갔다. 산소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꽂고 있는데도 ‘네가 잘못된거다,

내가 잘못된거 아니다’고 했다. 7시간 정도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미 2차 돈을 낸 손님이 있으니 와서 일하라고 했다. 링거를 꽂은 채로 클럽으로 돌아가니 파파상이 링거를 뽑아버리면서 일 나가라고 했다. 팔이 멍투성이가 된 채로 화장을 하고 나가야 했다. 한국에 오면 이 병 치료를 못 받을 것 같아 오기 전 한달 동안 내내 치료를 받았었는데, 여기 와서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다가 동두천 P클럽에서 한 달 동안 일했는데, 여기는 2차 강요도 없었고 그저 미군과 카드게임하고 주스 마시는 편한 일이었다. 400달러 월급에 주스 커미션도 잘 받았다.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었는데 매니저 말로는 마마상이 우리가 싫다고 한다고 우리를 옮겨버렸다.

옮긴 곳은 의정부의 G클럽이라는 곳이었다. 2주정도 있었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어서 돈도 못 버는 곳이었다. 매니저에게 옮겨달라고 해서 다시 의정부의 Z클럽으로 옮겼다.

G클럽과 Z클럽에서는 2차를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두 군데로 옮겨 다닌 것은 P클럽에서 만난 미군 남자친구가 훈련소에 간 사이 이루어진 일이었다. 남자친구는 나디아의 몸값을 내서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데 매니저에게 알아보니 그 돈은 2만 달러라고 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러시아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계약기간이 6개월이니 그 이후에는 그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매니저 말로는 아니라고 내야한다고 했다. 결혼 말이 9월말 쯤 나오고 남자친구와 매니저가 몸값 계산을 하기로 한 것이 10월 6일이었는데, 그 6개월을 계산해보니 10월 30일 정도가 계약만료 일이었다. 러시아에서는 나디아의 양어머니가 웨스트라인 에이전시에 연락을 해주었고, 그 쪽에서도 발각 뒤집혀 비서가 매니저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었다. 그러자 매니저는 6개월을 연장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했고, 그녀의 사인도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매니저를 신고하러 나가려고 했는데 매니저가 나타나 왜 러시아에 전화했느냐고 따졌고 끔찍한 파주의 R클럽으로 그녀를 옮겨 버렸다.

파주의 R클럽은 너무 좁고 습하고, 아예 물도 안나왔다. 한국 손님은 억지로 나디아를 택시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 실랑이를 하다가 스트레스로 원래 갖고 있던 병으로 경련이 일어나는 등 몸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자주 찾아오던 미군 손님에게 연락하니 그가 병원에도 데려다주고 병원비도 내 주었다. 그 사람한테 동두천에 남자친구가 있으니 데려다 달라고 부

탁했다. 그녀는 남자친구에게로 가서 호텔에서 며칠 쉬었고 11월 17일 두레방을 통해 서울의 쉼터로 거처를 옮겼다.

한편 나디아의 러시아 에이전시에 연락을 해서 그녀의 계약기간이 6개월이었다는 자필확인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팩스로 받았다. 그리고 계속 매니저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의정부 경찰서에 도움을 청했는데도 매니저를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12월 8일 경찰청에 매니저를 찾아줄 것을 의뢰하였고, 12월 10일 매니저와 연락이 되어 현재 협상 진행 중이다. 밀린 임금지불과 고용계약 해지서를 써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매니저는 오히려 임금은커녕 위약금을 내라고 주장하고 있다.

9) 한국 여성 1 : 김미선 (파주)

김씨는 1936년 생으로 올해 68세이다. 아버지의 고향은 경상북도 청송이지만 김씨는 일본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부모님, 언니와 함께 일본에서 살았다.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어머니가 일본에서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두 명의 아들이 있는 새어머니와 재혼을 하였다. 김씨의 아버지는 무슨 장사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일본에서 아주 많은 돈을 벌었다. 그리고 해방 즈음에 삼촌이 돈다발을 몸에 지니고 한국으로 들어왔고, 김씨의 가족들도 돌아왔다.

고향인 청송으로 돌아오자 새어머니는 김씨를 버렸다. 그때가 열 살 내지 열한 살로 기억하는데, 새어머니는 인천 신흥동 향린병원에 김씨를 데려다 줬고 김씨는 그 병원에서 심부름과 허드렛일을 했다. 그러던 중 김씨의 큰아버지의 친구가 자신의 아들에게 김씨를 달라고 하였고, 김씨는 열 몇 살 나이 때 큰아버지 친구의 아들과 첫 번째로 결혼하게 되었다. 그는 외아들이었고, 결혼 후 곧 한국전쟁에 나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어머니가 점을 보았는데, 점쟁이는 며느리가 집에 같이 있으면 전쟁에 나간 아들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새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김씨에게 친정에 가있으라고 내보냈고, 김씨가 친정으로 가자

새어머니는 받아주지 않았다. 김씨는 다시 시집으로 갔지만 새어머니 역시 못들어오게 막았다.

양쪽 집에서 쫓겨나서 혼자 오갈 때가 없게 되었을 즈음 14후퇴로 대구에 피난을 갔다. 대구에서 김씨는 남대문시장 음식점 식모살이를 시작했다. 하지만 어린시절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김씨는 우리말을 잘 못했고, 그로 인해 바보취급을 당했다. 게다가 낮에는 음식을 팔았지만 저녁에는 술을 팔았고, 주인은 김씨에게 술을 팔라고 시켰다. 김씨는 바보취급을 당하는 것과 술파는 것이 싫어서 그 음식점을 나왔다.

그 후 김씨는 대구 동천의 술집에 있게 되었다. K2 미공군기지가 있던 그곳에서 김씨는 미군을 만나 함께 살았는데, 그때가 18세에서 19세 때쯤으로 기억하고 있다. 김씨는 미군과 동거를 하면서 22세 때 큰아들을 낳았다.

미군을 따라가 경기도 광탄에 살 때는 새어머니가 낳은 여동생 1명과 남동생 1명이 김씨 집에 찾아와 함께 살았다. 김씨는 여동생을 미용학원에 보내고 과정을 다 마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하였으며 그 후 파주 봉일천에 있는 미용실에 취직시켜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남동생이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가지고 다시 올라왔다. 김씨가 집에 가보니 아버지는 아프지 않았고, 대신 돈을 달라고 했다. 김씨는 집에 돌아와서 현찰을 편지봉투에 넣어서 보냈는데, 그 돈을 우체부가 떼어먹어서 당시 경찰이던 사촌오빠가 나중에 우체부를 잡아 그는 우체국에서 해고되었다고 한다.

김씨는 첫 번째 미군남편과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아들을 낳았고, 남편이 본국으로 돌아가자 경찰에게 돈을 주고 아들을 독자호적에 올렸다. 첫 번째 남편은 베트남전쟁에 갔다가 사망하였고, 두 번째 미군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딸을 하나 낳았다. 김씨는 두 번째 남편이 본국으로 돌아간 후 세 번째 남편을 만나 동거하면서 아들을 또 한 명 낳게 되었다. 이렇게 모두 세 명의 미군과 동거를 하였으며, 총 5~6년 정도를 함께 살았다. 둘째인 딸은 자신의 친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릴 적 자신을 많이 사랑해준 남동생의 아버지가 친아버지라고 알고 있다.

큰아들은 독자호적으로 올렸으나 둘째 딸과 셋째 아들은 김씨의 성을 따랐다. 그래서 김씨는 큰아들의 성도 바꾸고자 재판을 하였다. 그러나 재판을 하

던 중 큰아들이 한국여성과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셋째 아들도 후견인의 도움으로 3년 전에 미국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대구에서 경기도로 올라온 이후에는 지금까지 30년 넘게 거의 대부분을 파주 근방에서 살았으며, 현재는 둘째 딸과 함께 살고 있다. 김씨의 딸은 미국여행은 하고 싶지만 살고 싶지는 않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도 크기 때문이다.

김씨는 일본에서 초등학교 3학년을 다닌 것 말고는 한국에서의 학교경험이 전혀 없다. 우리말은 생활하면서 그냥 배웠고, 읽고 쓰는 것은 20세가 넘어 야학과 교회에 다니면서 배웠다. 그래서 김씨는 아직도 어려운 우리말은 잘 쓰지 못한다고 한다.

김씨는 2, 3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고, 밭일, 공장일 등으로 생계를 꾸리며 아이들 셋을 혼자 힘으로 키워 모두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켰다. 현재는 고관절, 위장병, 혈압 등으로 건강이 나빠져 더 이상 일을 하진 않는다. 대신 미용사인 딸이 버는 돈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올해 32세로 미용사 경력 3년째인 딸의 월급은 한달에 65만원이다. 생활비 15만원과 딸의 교통비와 약간의 용돈을 제외하고는 37만원 정도를 저축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은 전혀 없으며, 김씨가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석 달에 한번씩 받는 교통비 3만 6천원이 전부이다.

김씨는 현재 전세 육백만 원짜리 방 두 개와 부엌이 딸린 집에서 살고 있다. 화장실은 마당에 채래식이 있고, 물난리가 날 때면 집이 침수되어 가구는 성한 것이 없다. 또한 김씨는 다리와 위가 많이 아프지만 병원비와 약값 부담으로 병원에 자주 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김씨는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얼마간의 생계비 지원과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김씨의 딸도 다른 일을 계획해볼 수 있다. 김씨의 딸은 제과제빵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따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미용실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무료직업교육을 받기가 어렵다. 또한 파주에는 무료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마땅치가 않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읍사무소에서는 김씨에게 노동 능력이 있는 딸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되기에는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본 회는 쌀 등의 지원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을 도와주었다. 또한 기초생활보호법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읍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이 들고 병든 김씨도, 편견 많은 우리 사회에서 태어난 아메리시안 딸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씨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지만 다리가 많이 아파 언덕위의 교회에 일요일마다 가지는 못한다. 대신 구역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며, 낮에는 주변 동료의 집을 가끔씩 방문하거나 누워있다. 그것이 김씨의 하루 일과이다.

10) 한국 여성 2 : 이은희 (의정부)

이씨는 1968년 6월 25일생으로 올해 36세이다. 어린시절부터 대학졸업 후 결혼할 때까지 양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이씨의 어머니는 이씨의 친부와 사귀면서 임신하여 결혼을 하려 했으나 그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이씨의 어머니는 아이를 줄 수 있는 임신부를 찾는 한국여성을 만나게 되었다. 그 여성은 멕시코계 미국남자와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 남편과 함께 미국에 가면서 아이를 입양해가길 원하는 사람이었다. 이씨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씨를 낳을 때까지 두 번의 돈을 받고 이씨를 낳자마자 그 여성에게 주었다. 첫 번째로 이씨의 양어머니가 된 이 여성은 미국에서 2년 만에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씨의 양어머니는 이씨를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에 있는 고아원에 맡겨, 얼마 후 이씨는 다른 양부모를 만나게 되었다.

이씨의 두 번째 양부모는 서울에서 그런대로 잘살고 있었다. 그들은 예뻐하던 막내딸이 죽자 고아원에 있는 비슷한 또래의 이씨를 데려다 키우려 한 것이다. 이씨는 정식으로 입양되지 않았고 죽은 막내딸의 호적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래서 이씨는 양부모의 막내딸의 이름도 그대로 썼고, 나이도 이씨의 실제 나이보다 세 살이 더 많게 되었다.

이씨는 두 번째 양부모와 함께 살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 서울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고3시절 어느 날 방에 누워 있을 때, 이씨가 자는 줄 알고 양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양부모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가출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두 번째 양부모와 지낼 때에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편이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화실에 다니며 그림을 그렸고 M대 미대 서양화 전공으로 진학했다. 광주에 있는 고모댁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학교수업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평범하게 지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서울 청계천에서 부속품 사업을 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다. 27세에 결혼을 해서 바로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이 이씨와 친한 후배와 바람을 피워 2년 만에 이혼을 하고 집을 나왔다. 법적으로 이혼문제가 정리된 것은 남편과 헤어지고 3년이 지난 후였다.

이씨는 남편과 헤어진 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며 몇 년 동안 살았다. 그러나 이씨가 수업중인 반에서 한 아이가 뛰어놀다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고, 아이의 부모가 학원에 항의하여 이씨는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다. 학원을 그만두고 일자리가 없었던 이씨는 생활정보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2000년 7월 5일부터 의정부시 고산동 클럽에 와서 일을 하게 되었다. 술을 못 마시는 이씨는 수입도 많고 술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는 광고문구에 끌렸다고 했다.

의정부에서는 K클럽에서 3년 동안 일을 했는데, 클럽은 주인이 나쁘기로 동네에서 유명한 클럽이었다. 한달에 휴일은 이틀, 하루 결근하면 10만원, 지각 10분하면 3천원, 싸우면 20만원의 벌금이 있었다. 2차 손님은 많을 때는 하루에 3명, 일주일에 5, 6명일 때도 있었다. 한달 동안 많게는 20명 넘게 2차 손님이 있기도 했다.

수입은 보통 한달에 기본급 50만원에 20%의 주스커미션과 2차 커미션을 받았다. 2차 커미션도 주스값으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 즉 한달에 주스 2천 5백잔 이상을 파는 사람은 기본급 60만원에 주스커미션을 30%씩 지급했다. 주스 3천 잔의 매상을 올리는 사람은 기본급 70만원을 지급했다. 2차 비용은 손님이 지불하는 돈이 30분에 150달러, 긴 밤은 200

달러이다.

의정부의 다른 클럽들이 보통 한국여성들에게 기본급 70만원에 주스커미션을 주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월급이 적은 편이며, 2차도 주인이 명령하면 여성들을 절대로 거절을 할 수가 없다.

2003년 9월 28일 K클럽에서 일하던 한국여성 4명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4명중 3명은 이 클럽에서 일한지 한달 정도밖에 안되는 여성들이었다. 한명은 미군장교와 결혼해 4살짜리 아이 하나를 두고 있는 32세의 한국여성이었는데 9월 초에 서울지법에 전화로 신고를 한 상태였다. 나머지 여성은 28세와 21세 된 한국여성으로 하루와 이틀을 빼졌다는 이유로 주인이 한 달 치 월급을 안주자 경찰청 인터넷에 글을 올렸고, 결국 조사를 하던 의정부 경찰서에서 이씨까지 포함해서 4명의 여성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한 것이다.

조사 당일 이씨는 K클럽에서 2차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진술을 한 후 더 이상 클럽에 있을 수 없게 되자 그대로 클럽에서 몸만 빠져나왔다. 클럽 주인 부부가 구속된 후 다른 클럽을 운영하는 주인의 아들은 이씨에게 진술을 반복해 줄 것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회유했다. 다른 세 명은 모두 그 클럽에서 한달밖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년 동안 일을 한 이씨의 증언이 비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씨가 진술을 반복해 주지 않자 클럽주인의 아들은 미군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이씨에게 미국비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다. 이씨는 클럽 주인이 자신의 미국비자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지와 자신이 2차를 나간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상담하였다. 경찰과 상의한 결과 이씨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며, 비자도 문제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준 후 이씨는 걱정을 덜고 안정이 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클럽주인 아들이 이씨의 보건증을 가지고 계속 협박을 하였고, 이씨는 11월 1일 보건증을 받는 조건으로 자필탄원서를 써줬다. 다른 사람이 자신과 연관된 일로 어려워지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도 자필탄원서를 써준 큰 이유라고 하였다. 12월 현재 이씨는 아직까지 보건증은 받지 못한 상태이며, 클럽 주인은 12월 3일 구속 되었다. K 클럽의 사장은 남편이지만 실제적 운영은 부인이 했기 때문에 부인은 윤락행위등 방지법 위반으로

구속기속 되었고 남편은 불구속기속 되었다. 의정부 경찰서는 의정부시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고, 클럽은 곧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것이다.

이씨는 9월 말 클럽을 나온 후 경기도 어떤 도시의 다방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빈 몸으로 나간 이씨를 긴급지원을 하며 계속 상담을 하였다. 이씨는 11월에 미군 남자친구와 결혼하여 12월에 주미대사관 이민국에서 이민 허가를 받고 현재 비자 수속중이다. 이씨는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을 살리고 통장을 개설하여 미국에 먼저 가있는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송금 받을 예정이다. 또한 이씨는 전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한 난관수술을 복원하고 싶어 한다. 난관복원수술이 3, 4백만 원의 큰 돈이 드는데다 성공률도 60~80% 밖에 되지 않지만, 아이를 원하는 남편을 위해 미국에 가기 전에 수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자문을 받고 도움을 청하고 있다.

이씨는 처음 한 달 동안 일한 다방에서 받은 월급 150만원을 결혼 수속을 하느라 빠진 결근벌금으로 다 떼이고 한 푼도 받지 못하였다. 다방의 벌금은 하루에 15만원, 한 시간에 2만원이었다. 다시 두 번째 다방으로 옮긴 이씨는 혹시 낼지 모를 수술비와 미국에 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한달정도 더 일하려고 한다. 그리고 수술을 받고 상처가 아물면 미국의 켄사스로 갈 계획이다. 이씨의 꿈은 평범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11) 한국 여성 3 : 하지원 (동두천)

하씨는 1959년생으로 45세이다. 고향은 부산으로 양할머니 댁에서 죽 자랐고, 어릴 때라 부모나 출생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 양할머니에 의하면, 어느 날 집 옆 시멘트로 만들어진 쓰레기통 옆에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버려져서 울고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버려져 있던 하씨를 양할머니가 데려다 키어주었다. 때문에 이름과 나이, 생일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어릴 적 기억은 할머니와 삼촌들에 대한 기억이 전부다. 큰삼촌은 교도소를

계속 들락거렸고, 작은 삼촌은 무슨 공장에 다녔다. 하씨는 학교를 한번도 가본 적이 없으며 양할머니를 도와 집안 살림을 거들었다. 하씨는 지금도 글씨를 정확히 잘 읽지 못한다. 그러다 하씨가 12살쯤 되었을 무렵 양할머니는 어려운 살림에 입 하나를 덜기 위해 하씨를 결혼시켰다. 하씨는 이때 부산에서 동두천으로 오게 되었는데, 첫 번째 남편은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다. 결혼생활은 매우 힘들었다. 집안 살림은 어려웠고 남편은 계속해서 하씨를 구타했다. 결혼 후 2, 3년이 지났을 무렵(15세 또는 16세로 기억한다) 하씨는 생계를 위해 포장마차를 시작했다. 재료를 구해다가 닭발과 닭똥집 등을 직접 만들었고, 소주와 맥주를 팔았다. 포장마차를 할 때도 번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은 늘 때렸다. 17살 때 처음으로 임신을 했지만 너무 많이 맞아서 아이가 유산되었다. 그 후 다시 임신을 했을 때는 남편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며 구타를 했다. 결국 무사히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딸과 아들 쌍둥이었다. 하씨는 부업에서 아이들을 낳고 부업칼로 혼자 땀줄을 잘랐다. 그 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생계를 꾸리는 중에도 남편의 구타는 계속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19, 20세 무렵에 남편에게 맞다가 이대로 있으면 죽겠다 싶어 입은 채로 돈 30원을 든 채로 도망을 나와 어딘가로 들어갔다. 도망쳐 들어간 곳이 클럽이었고, 그후로 클럽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포주는 들어가 자마자 가구를 들여놔주고 150만원의 빚을 올렸다.

클럽에서 얼마 일하지 않아 미군(흑인)을 만났고, 미군은 하씨의 빚 150만원을 갚아주고 정식으로 결혼을 하였다. 결혼 후 하씨는 미군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갔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와 오클라호마에서 살았다. 남편은 아주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미국에서 하씨는 아들과 딸을 한 명씩 낳았다. 하씨는 이 시절을 가장 행복한 시절이라고 꼽는다. 하지만 남편은 3년을 살고 갑자기 심장병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하씨는 아이들 둘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집을 나왔다. 남편이 사망하고 유산을 우리 돈으로 1억 정도 받았지만 시어머니가 사업을 한다고 가져가 다 날려버렸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하씨를 다른 어떤 미국인과 결혼을 시켰다. 그 미국인은 하씨를 클럽에 팔려고 했다. 하씨는 도망을 쳤고 네 번째로 만난 남성과 동거를 하다 헤어졌다. 그 후 미국에서 다섯 번째 남성을 만나 동거를 했는데 부인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 남성과 헤어진 후 하씨는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미국에서는 총 7년 정도를 살았다.

우리나라에 돌아왔지만 배운 것도, 연고도, 도움 받을 사람도 없는 하씨는 다시 동두천에 있는 클럽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클럽에서 일을 하다가 강원도가 고향인 한국 남성을 만나 다시 결혼하였다. 이 남성과는 6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였다. 살면서 한번 임신을 하였는데 유산이 되어 수술을 받았다. 유산이 된 후 다시 배가 불러 임신인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 자궁에 혹이 3개가 있다고 하였다. 이 혹으로 인해 할 수 없이 2년 전에 자궁적출수술을 받았다. 남편은 알콜 중독에 구타가 심했으며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때문에 하씨는 남의 집 빨래와 청소를 하거나 빈병을 주워다 팔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집을 나와 다시 클럽에서 마마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하씨를 처음 만났을 때 하씨가 일하던 클럽은 동두천의 L 클럽으로 저녁 6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을 하였다. 평일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는 미군 손님들을 받았고,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디스코 클럽이 되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새벽 1시까지 미군 손님들을 받았다.

하씨가 받는 월급은 기본급 60만원에 티켓 값이 더해졌다. 하씨가 버는 티켓값은 보통 한달에 15만원 정도가 된다. 그리고 지각하면 1시간에 2만원의 벌금이 있다. 이렇게 버는 돈으로 빚을 갚고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한달에 방세로 나가는 돈이 25만원이고 식비 2만원과 세금 2만원, 의료보험비 1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빚을 갚는데 쓴다. 음주와 흡연을 안하지만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뒤로는 건강이 더 나빠진 것 같다. 의사는 명치에 혹이 있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고, 골다공증과 빈혈이 있고 왼쪽 귀도 잘 안들린다. 하지만 빚을 빨리 갚기 위하여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되고 싶지만 전남편과 이혼수속이 되어 있지 않아 그것도 쉽지 않다.

하씨는 자신의 건강상태 때문에 2003년 10월 말 일하던 L 클럽에서 해고를 당하고, 방세도 두 달이나 밀려 쫓겨나게 되었다. 그리고는 다른 클럽의 마마상 일자리를 구하였다. 당장 돈이 하나도 없었던 하씨에게 이사비용과 생활비 등을 긴급지원을 하였으며, 하씨의 이혼 문제 정리는 현재 다비타의 집에서 도와주고 있다.

하씨는 생활걱정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소원이고, 미국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고 싶고 미국에 가서 사는 것이 꿈이다.

12) 한국 여성 4 : 최지나 (파주)

최씨는 1973년 생으로 올해 31세이다. 현재 파주의 A 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최씨는 술을 그렇게 잘 마시는 편이 아니지만 직업상 술을 많이 마시게 되기 때문에, 몸이 힘들고 어떤 때는 전날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기도 한다. A 클럽에는 2003년 8월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여 일을 한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원래 고향은 원당으로 그곳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현재 홀로계신 어머니는 일산에 살고 계신다. 최씨의 집은 최씨가 어릴 적 재산이 아주 많은 편이었으나 아버지가 늙음으로 재산을 다 날리고 하나 있는 남동생이 사고를 계속 치면서 가세가 기울었다. 때문에 지금 일산에 홀로 살고 계신 어머니는 아주 작은 단칸셋방에 살고 계신다.

최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즉 집에서 자랐으며, 졸업 후에는 서울에 있는 건축사무소의 경리로 취직하여 일을 하였다. 그리고 건축사무소 일을 그만두고 강남에 있는 큰 레코드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만나던 사람과 23세에 결혼을 하였다. 결혼생활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순탄하였다. 그러나 3년을 살았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최씨는 남편과 이혼을 하였다.

결혼식을 하고 절차를 다 밟아 결혼을 하였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결혼신고를 안한 상태로 3년 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에 호적상에는 결혼한 사실도 이혼한 사실도 나타나 있지 않다. 이혼을 하고 나서 최씨는 창원에 내려가서 가게를 시작하였다. 신발과 악세사리를 파는 가게를 차렸는데 그런대로 잘 운영되었다. 하지만 가게를 하다가 아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여 2천만 원을 빼이고 나서 그 돈이 고스란히 최씨의 빚이 되었다. 이 때문에 최씨는 빚을 갚기 위해 스스로 술집에 나가게 되었다.

인천에 와서 톱살롱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한국술집 세 군대를 돌며 일을 했다. 한국의 톱살롱에서는 2차를 나가면 2차 비용 전부를 최씨에게 주었지만 방세와 생활비, 빚 갚는 돈,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최씨에게 남는 돈은 없었다. 그러다가 최씨는 파주의 외국인 전용클럽으로 일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인천에 있던 한국술집에서 알던 언니가 파주의 외국인 전용클럽

마마상으로 오면서 이곳을 소개받게 되었다.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미군을 상대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파주가 처음이다. 처음에는 O 클럽에서 두달 동안 일을 하다가 석달째부터는 옆에 있는 A 클럽으로 옮겨서 일을 하였다. O 클럽은 2차를 나가면 2차 비용 20만 원중 5만원만 최씨의 몫으로 주었다. 그러나 A 클럽은 2차비용 20만 원에 10만 원을 최씨의 몫으로 주었으며 2차도 강요하지는 않았다. 최씨가 클럽에서 한달에 버는 돈은 주스값을 합쳐서 제일 많이 받아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선이 다. 하지만 방세와 생활비, 최씨의 병원비, 그리고 어머니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대고나면 남는 돈은커녕 돈이 모자라므로 계속해서 월급을 당겨서 쓰게 된다.

더구나 과음으로 몸이 아프거나 최씨의 지병으로 몸이 아파 결근을 하면 하루에 벌금 10만원씩을 떼이게 되고, 그리고 나면 빚을 갚기는커녕 매일 생활비가 없어 허덕이게 된다. 그나마 외국여성들에게는 20만원씩 받는 벌금을 한국여성들에게는 싸게 해주는 편이다. 그래도 최씨는 클럽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벌금을 무는 일이라고 했다. 벌금 때문에 최씨는 계속 월급을 당기게 되고 계속 빚이 늘어간다.

결근을 자주 하게 되는 데는 과음을 못 견디는 이유도 있지만 최씨의 건강도 큰 이유가 된다. 최씨는 4년 전부터 일산의 한 종합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우울증과 거식증 공황장애가 있고 위도 별로 좋지 않다. 한달에 한번씩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다 먹는데 병원비로 한달에 20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이 버는 돈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는 힘들다. 작년에는 이혼해서 각각 살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입원을 하기도 했다. 집안에 그런 큰돈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그건 모두 최씨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더욱 힘들다.

최씨는 파주에 오면서는 방세와 생활비로 클럽 주인에게 4백만 원을 당겨 썼다. 200만원은 현재 살고 있는 방의 월세 보증금으로 썼고 나머지는 한달치 방세 20만원과 이사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다 썼다. 이 돈을 빌리고 나서 주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일수 4백만 원을 빌리며 최씨에게 보증을 서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할 수 없이 각서를 쓰고 보증을 서줬다. 그리고 클럽장사가 잘 안되자 A 클럽 주인은 최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계속 요구했고, 최씨

가 당장은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이야기 하자 최씨를 다른 클럽으로 넘기겠다고 했다. 최씨는 다른 클럽으로 가는 것이 싫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의논했다.

최씨는 8월부터 사귀고 있는 미군남자친구가 있다. 청혼을 받은 후부터는 빚을 갚고 이 생활을 정리하고 남자친구와 결혼해 미국으로 가려는 마음을 먹었다. 때문에 최씨는 월세 보증금을 빼고 월급을 보태서 주인에게 빚을 갚고 모자라는 돈은 주인이 최씨에게서 벌금 명목으로 가져간 돈을 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후, 클럽 생활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결혼 수속을 밟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있을 쉼터를 알아보는 중이며, 최씨도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PROFILE SHEET (Working in the Clubs)

No. _____ Date of Interview: _____
 Area: _____ Interviewer: _____

Note: Please read and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honestly.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will help us better understand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women working in the clubs. Also this will help us know better how to facilitate the women through our educational programs so we can support them better and make life easier for them.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My Sister's Place.

Background Information

Name: _____ Age: _____
 Address in Korea: _____ Tel. (mobile): _____
 Civil Status: married with partner separated
 divorced widow single
 Country of Origin: _____ Province/State: _____
 Nationality: _____
 Nationality of spouse/partner, if applicable: _____
 Number of children: _____ boys: _____ girls: _____
 Dependents: children parents relatives
 Religion: Catholic Christian Buddhist
 Islam Others: _____
 Education: Primary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Post Graduate

Languages Spoken: English Korean Filipino
 Spanish Russian Others: _____

Previous work in home country/other countries:
 (Please list the last three jobs you had before coming to Korea)

Country	Job Description	Month/Year	Salary
a.			
b.			
c.			

Migration Work History

- When did you arrive in Korea?
 _____ day _____ month _____ year
- How did you come to Korea? agency relative friend
 on my own advertisement others: _____
- Why did you come to Korea? to make money couldn't find work at home
 for experience tourism others: _____
- How did you come to know about the work opportunities in Korea?
 friend relative recruitment agency others: _____
- If you came via an agency, how did you know the agency in your country?
 advertised agency in the newspaper introduced by a friend
 unadvertised legal agency unadvertised illegal agency
- Name of the recruitment agency in your country:

- Address of the recruitment agency in your country:

- Name(s) of Agent(s)/Recruiter(s) in your country:

9. Did you pay for all your documents?

yes, how much did it cost?

a. agency fee \$ _____

b. passport \$ _____

c. airplane ticket \$ _____

d. necessary documents \$ _____

e. others: (specify: _____) \$ _____

no, but I agreed to a salary deduction once the work starts

10. Did you use your real name in your passport? yes

no, why not? _____

11. What kind of visa did you have to enter Korea?

tourist visa fiancee visa entertainer visa (E-6)

others, specify: _____

12. Did you travel directly to Korea from your country of origin?

yes

no, specify countries in transit: _____

1. Financial

1. How much was your agreed salary per your contract? _____

1. How much is your actual salary per month? _____

1. How is your salary paid? in cash via ATM

others (please specify: _____)

1. How often is your salary given? weekly fortnight

monthly every other month others: _____

1. Do you get any bonuses on special days (e.g. Chusok or Sulnal)

yes, how much: _____ no

1. Is your salary adequate for your needs in Korea and those of your family back home? yes no others: _____

Working Conditions

1. Work history in Korea (give at least the 3 last work places you had before this one)

Name of Club/Co.	Address	Job Description	Duration	Salary
a.				
b.				
c.				

1. Were you oriented exactly what kind of job you were suppose to do as stipulated in your contract?

yes, what did your contract say? _____

no, why not? _____

1. Is this current club you are working now your first job?

yes no, why not? _____

1. How many times have you changed clubs/work places since you came to Korea? ____

1. How many hours are you required to work per day?

1. Do you receive overtime pay? no yes, how much _____

1. What would be the busiest days in the club?

1. Do you get any day off? no yes, how often _____

1. Have you ever experienced any form of abuse from your customer(s)/employer(s)? no yes, from customer(s)

yes, from employer(s) yes, from co-worker(s)

1. Forms of abuse from customer(s)/employer(s) and co-worker(s)

	Verbal Abuse	Physical Abuse	Sexual Abuse	Emotional Abuse
Customer (s)	<input type="checkbox"/> scolding <input type="checkbox"/> shouting <input type="checkbox"/> cursing <input type="checkbox"/> yelled at <input type="checkbox"/> others: _____	<input type="checkbox"/> hitting <input type="checkbox"/> kicking <input type="checkbox"/> pulling hair <input type="checkbox"/> shoving <input type="checkbox"/> others: _____	<input type="checkbox"/> forced to have sexual intercourse <input type="checkbox"/> forced to have anal intercourse <input type="checkbox"/> forced to have oral sex <input type="checkbox"/> others: _____	<input type="checkbox"/> shamed in public <input type="checkbox"/> compared with other club workers <input type="checkbox"/> ignored <input type="checkbox"/> others: _____
Employer (s)	<input type="checkbox"/> scolding <input type="checkbox"/> shouting <input type="checkbox"/> cursing <input type="checkbox"/> yelled at <input type="checkbox"/> others: _____	<input type="checkbox"/> hitting <input type="checkbox"/> kicking <input type="checkbox"/> pulling hair <input type="checkbox"/> shoving <input type="checkbox"/> others: _____	<input type="checkbox"/> forced to have sexual intercourse <input type="checkbox"/> forced to have anal intercourse <input type="checkbox"/> forced to have oral sex <input type="checkbox"/> others: _____	<input type="checkbox"/> shamed in public <input type="checkbox"/> compared with other club workers <input type="checkbox"/> ignored <input type="checkbox"/> others: _____
Co-worker(s)	<input type="checkbox"/> scolding <input type="checkbox"/> shouting <input type="checkbox"/> cursing <input type="checkbox"/> yelled at <input type="checkbox"/> others: _____	<input type="checkbox"/> hitting <input type="checkbox"/> kicking <input type="checkbox"/> pulling hair <input type="checkbox"/> shoving <input type="checkbox"/> others: _____	<input type="checkbox"/> forced to have sexual intercourse <input type="checkbox"/> forced to have anal intercourse <input type="checkbox"/> forced to have oral sex <input type="checkbox"/> others: _____	<input type="checkbox"/> shamed in public <input type="checkbox"/> compared with other club workers <input type="checkbox"/> ignored <input type="checkbox"/> others: _____

1. Selling drinks

a. Have you a quota to sell drinks?

no yes, how much _____

b. How much is a single drink? _____

c. How much do you get from each sold drink? _____

d. Are you penalized if you don't meet the quota?

no yes, how _____

1. What are the nationalities of your customers? Americans

Koreans Filipinos Others: _____

1. Are there bar fines in your club?

no yes, how much _____

1. How much do you share from the bar fines?

1. Have you experienced running away from the club?

no yes, why? _____

1. What are the nationalities of your co-workers? Koreans

Filipinos

Russians Others: _____

1. Are you holding your necessary documents (e.g. passport, alien card, etc)?

yes no, why? _____

Living Conditions

Please describe your living arrangements (including location from your club, any payments you share with your boss or co-workers and how much, people living with you)?

Please describe the medical care you get (including the monthly check ups, payments made or medical insurance, rest day given if you don't feel well, etc.)?

Describe your experience during medical check ups (including how the medical staff treat you, any unpleasant experiences being foreigners, etc.)?

Community Life

Describe your community life (including how you socialize during your free-time, who you socialize with, etc)?

Problems and Comments

Describe any problems and difficulties you experience in Korea and how you cope with them (including working conditions, financial, culture, employer, etc.)

Future Plans

What are your plans after your contract finishes?

PROFILE SHEET (Formerly working in the Clubs)

No. _____ Date of Interview: _____

Area: _____ Interviewer: _____

Note: Please read and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honestly.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will help us better understand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women formerly working in the clubs. Also this will help us know better how to facilitate the women through our educational programs so we can support them better and make life easier for them.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My Sister's Place.

Background Information

Name: _____ Age: _____

Address in Korea: _____ Tel. (mobile): _____

Civil Status: [] married [] with partner [] separated
[] divorced [] widow

Country of Origin: _____ Province/State: _____

Nationality: _____

Nationality of spouse/partner, if applicable: _____

Number of children: _____ boys: _____ girls: _____

Dependents: [] children [] parents [] relatives

Religion: [] Catholic [] Christian [] Buddhist

[] Islam [] Others: _____

Education: [] Primary School [] High School

[] University [] Post Graduate

Languages Spoken: English Korean Filipino Spanish
 Russian Others: _____

Previous work in home country/other countries:
(Please list the last three jobs you had before coming to Korea)

Country	Job Description	Month/Year	Salary
a.			
b.			
c.			

Migration Work History

- When did you arrive in Korea?
_____ day _____ month _____ year
- How did you come to Korea? agency relative friend
 on my own advertisement
others: _____
- Why did you come to Korea?
 to make money couldn't find work at home
 for experience tourism
 others: _____
- How did you come to know about the work opportunities in Korea?
 friend relative
 recruitment agency others: _____
- If you came via an agency, how did you the agency in your country?
 advertised agency in the newspaper introduced by a friend
 unadvertised legal agency unadvertised illegal agency
- Name the recruitment agency in your country:

- Address of the recruitment agency in your country:

8. Name(s) of Agent(s)/Recruiter(s) in your country:

- Did you pay for all your documents?
 yes, how much did it cost?
a. agency fee \$ _____
b. passport \$ _____
c. airplane ticket \$ _____
d. necessary documents \$ _____
e. others: (specify: _____) \$ _____
 no, but I agreed to a salary deduction once the work starts
- Did you use your real name in your passport? yes
 no, why not? _____
- What kind of visa did you have to enter Korea?
 tourist visa fiancee visa entertainer visa (E-6)
 others, specify: _____
- Did you travel directly to Korea from your country of origin?
 yes
 no, specify countries in transit: _____
- Name of the club where you worked before you ran away/lived with your boyfriend/
married your boyfriend? _____

1. Changes from Club Life to Married Life

Describe your life while you were still in the club (including length of work in the club, salary, working conditions, living conditions, experience of abuse, etc.)

Describe why and how you changed from club life to married life (including why you decided to change, how you left the club, how you met your husband, etc.)

Living Conditions

Please describe your living arrangements (including change of visa/recent visa, house rent, size of rented house and is it comfortable/safe/healthy to live for you and your children, etc.)

Where do you get medical help, etc?

Has your change from club life to married club life been beneficial to you (in terms of comfort, financial, health, free time, etc) and can you describe how? If no, why not?

Community Life

Describe your community life (including how you socialize during your free-time, who do you socialize with, etc)

Problems and Comments

Describe any problems and difficulties you experience in your married life and how you cope with them (including visa status, living conditions, financial, husband, children, employer, etc.)

개인신상서 (현클럽고용인)

번호: _____ 인터뷰 날짜: _____

지역: _____ 작성자: _____

주의사항: 다음사항을 읽고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아래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전직 클럽 고용인들의 생활상을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조사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여성들을 대우해야할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그 이해를 통해서 클럽 고용인들의 생활이나 처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두레방.

개인신상조사

이름: _____ 나이: _____

한국 내 주소: _____ 전화번호.(휴대폰): _____

결혼상태: [] 결혼 [] 동거 [] 별거 [] 이혼 [] 사별

출신국가: _____ 도/주: _____

국적: _____

배우자/파트너의 국적(있는 경우에 한함): _____

자녀수: _____ 아들: _____ 딸: _____

이외가족: [] 아동 [] 부모님 [] 친척

종교: [] 가톨릭 [] 기독교 [] 불교

[] 이슬람 [] 기타: _____

교육: [] 초등학교/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 [] 대학원이상

사용하는 언어: [] 영어 [] 한국어 [] 필리핀어

[] 스페인어 [] 러시아어 [] 기타: _____

1. 모국이나 외국에서의 직장경력:

(한국오기바로직전 최근 직장 순으로 기입해주세요)

국적	직책설명	기간(월/년)	월급
a.			
b.			
c.			

한국에서의 직장

- 한국 언제 도착하셨습니다? _____년 _____개월 _____일
- 어떻게 한국을 알게 되어 오셨습니까? [] 직장소개소 [] 친척 [] 친구
[] 스스로 [] 광고 [] 기타: _____
- 한국에 오신 목적은?
[] 돈을 벌기위해 [] 모국에서 직장을 잡을 수 없어서 [] 경험상
[] 관광 [] 기타: _____
- 한국에서의 고용기회에 대해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 친구 [] 친척 [] 직업알선업체 [] 기타: _____
- 직업알선단체를 통해서 왔다면, 모국에서 그 업체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 신문에서 업체의 광고를 보고 [] 친구 소개로
[] 광고를 하지 않는 공공단체 [] 광고를 하지 않는 불법단체
- 모국의 그 알선업체의 이름은: _____
- 모국의 그 알선업체의 주소는: _____
- 모국의 다른 알선업체들의 이름은: _____
- 서류들을 위해서 수수료를 지불하셨나요?
[] 지불했습니다, 얼마가 들었나요?
a. 알선비용 \$ _____
b. 여권비용 \$ _____
c. 비행기 값 \$ _____
d. 제반서류비용 \$ _____
e. 기타: (상세히: _____)\$ _____
[]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고용 후 월급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 여권에 실명을 사용하셨습니까? [] 예
[] 아니요, 이유는? _____

11. 한국 입국 시 사용한 비자는 무엇이었습니다?

- [] 관광비자 [] 약혼자비자 [] 예술인비자 (E-6)
[] 기타, 상세히: _____
12. 모국에서 바로 직접 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 예
[] 아니요, 경유하신 국가는: _____

재정사항

- 계약서에 얼마를 받기로 했었나요? _____
- 한달실질 급여는 얼마였나요? _____
- 급여는 어떻게 받으셨나요? [] 현금 [] 현금지급기를 통해서
[] 기타 (상세히: _____)
- 급여는 얼마에 한번씩 받으셨나요? [] 주급 [] 2주마다
[] 매달 [] 두 달마다 [] 기타: _____
- 특별한 명절 때 보너스를 받은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추석이나 설날)
[] 예, 얼마: _____ [] 아니요.
- 급여가 모국에 있는 가족과 한국에서 필요한 생활에 충분했나요?
[] 예 [] 아니요 [] 기타: _____

근무조건

1. 한국에서의 직장경력 (현재직장이전 3곳을 기록해주세요)

클럽/회사 이름	주소	직책설명	기간	급여
a.				
b.				
c.				

- 계약서에 하게 될 일들이 확실히 명시되어 있었나요?
[] 예, 무엇이라고 쓰여 있었나요? _____
[] 아니요, 왜아니죠? _____
- 지금일하는 클럽이 첫 직장 인가요?
[] 예 [] 아니요, 왜아니죠? _____
- 한국에 온 뒤로 몇 번 클럽이나 직장을 옮기셨나요? _____
- 하루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_____
- 시간의 수당을 받으십니까? [] 아니요 [] 예, 얼마입니까? _____
- 클럽에서는 무슨 요일이 제일 바쁘십니까? _____
- 쉬는 날이 있습니까? [] 아니요 [] 예, 얼마나 자주 _____

1. 고객이나 고용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아니요 [] 예, 고객으로부터 [] 예, 고용주로부터 [] 예, 동료들로부터

1. 고객, 고용주, 그리고 동료들로부터의 부당한 처우

	언어 폭행	육체적 폭행	성폭행	정신적 폭행
고객	[] 비난 [] 고함침 [] 욕설 [] 큰소리침 [] 기타:	[] 구타 [] 발로참 [] 머리 [] 잡아당김 [] 밀침 [] 기타:	[] 성교 할 것을 강요당함 [] 항문성교를 강요당함 [] 오랄섹스를 강요당함 [] 기타:	[] 공공장소에서 모욕을 줌 [] 다른 클럽고용인과 비교함 [] 무시함 [] 기타:
고용인	[] 비난 [] 고함침 [] 욕설 [] 큰소리침 [] 기타:	[] 구타 [] 발로참 [] 머리 [] 잡아당김 [] 밀침 [] 기타:	[] 성교 할 것을 강요당함 [] 항문성교를 강요당함 [] 오랄섹스를 강요당함 [] 기타:	[] 공공장소에서 모욕을 줌 [] 다른 클럽고용인과 비교함 [] 무시함 [] 기타:
Co-worker(s)	[] 비난 [] 고함침 [] 욕설 [] 큰소리침 [] 기타:	[] 구타 [] 발로참 [] 머리 [] 잡아당김 [] 밀침 [] 기타:	[] 성교 할 것을 강요당함 [] 항문성교를 강요당함 [] 오랄섹스를 강요당함 [] 기타:	[] 공공장소에서 모욕을 줌 [] 다른 클럽고용인과 비교함 [] 무시함 [] 기타:

1. 주류 판매

a. 주류 판매 할당량이 있습니까? [] 아니요 [] 예, 얼마 만큼입니까 _____

b. 주류한잔에 얼마입니까? _____

c. 주류 한잔 판매 당 얼마를 받습니까? _____

d.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벌칙을 받습니까?

[] 아니요 [] 예, 어떻게 _____

1. 고객들의 국적은 어느 나라입니까? [] 미국인

[] 한국인 [] 필리핀인 [] 기타: _____

1. 일하시는 클럽에 벌금이 있나요? [] 아니요 [] 예, 얼마입니까? _____

1. 벌금 중 얼마를 할당 받습니까? _____

1. 클럽에서 도망친 적이 있습니까? [] 아니요

[] 예, 왜 그러셨습니까? _____

1. 동료고용인들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 한국인 [] 필리핀인

[] 러시아인 [] 기타: _____

1. 필요한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권, 영주권 등 등)?

[] 예 [] 아니요, 왜요? _____

생활여건

생활의 여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클럽의 위치나, 당신의 윗상사나 동료랑 공유해야하는 경비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등등) _____

의료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매월검사나, 지불한 금액이나 그리고 의료보험, 몸이 불편할 때 쉬는 날 등등) _____

의료검진 시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의료진이 어떻게 대우해주는지, 외국인이기 때문에 불편한점은 등등) _____

사회생활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여가 때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등등) _____

문제점이나 참고 할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한국에서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는지

(근무조건이나, 경제적인문제나, 문화적인 면, 고용주, 등등.) _____

장래계획

계약이 끝난 뒤 미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_____

개인신상서(전직 클럽고용인)

번호. _____ 인터뷰 날짜: _____
 지역: _____ 작성자: _____

주의사항: 다음사항을 읽고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아래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전직 클럽 고용인들의 생활상을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조사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여성들을 대우해야할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그 이해를 통해서 전직 클럽 고용인들의 생활이나 처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두레방

개인신상조사

이름: _____ 나이: _____
 한국 내 주소: _____ 전화번호.(휴대폰): _____
 결혼상태: [] 결혼 [] 동거 [] 별거
 [] 이혼 [] 사별
 출신국가: _____ 도/주: _____
 국적: _____
 배우자/파트너의 국적(있는 경우에 한함): _____
 자녀수: _____ 아들: _____ 딸: _____
 이의가족: [] 아동 [] 부모님 [] 친척
 종교: [] 가톨릭 [] 기독교 [] 불교
 [] 이슬람 [] 기타: _____
 교육: [] 초등학교/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 [] 대학원이상
 사용하는 언어: [] 영어 [] 한국어 [] 필리핀어
 [] 스페인어 [] 러시아어 [] 기타: _____

1. 모국이나 외국에서의 직장경력:

(한국오기바로직전 최근 직장 순으로 기입해주세요)

국명	직책설명	기간(월/년)	월급
a.			
b.			
c.			

한국에서의 직장

- 한국 언제 도착하셨습니까? _____년 _____개월 _____
- 어떻게 한국을 알게 되어 오셨습니까? [] 직장소개소 [] 친척 [] 친구
[] 스스로 [] 광고 [] 기타: _____
- 한국에 오신 목적은?
[] 돈을 벌기위해 [] 모국에서는 직장을 잡을 수 없어서
[] 경험상 [] 관광 [] 기타: _____
- 한국에서의 고용기회에 대해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 친구 [] 친척 [] 직업알선업체 [] 기타: _____
- 직업알선단체를 통해서 왔다면, 모국에서 그 업체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 신문에서 업체의 광고를 보고 [] 친구 소개로
[] 광고를 하지 않는 공공단체 [] 광고를 하지 않는 불법단체
- 모국의 그 알선업체의 이름은: _____
- 모국의 그 알선업체의 주소는: _____
- 모국의 다른 알선업체들의 이름은: _____
- 서류들을 위해서 수수료를 지불하셨나요?
[] 지불했습니다, 얼마가 들었나요?
a. 알선비용 \$ _____
b. 여권비용 \$ _____
c. 비행기값 \$ _____
d. 체반서류비용 \$ _____
e. 기타: (상세히: _____) \$ _____
[] 지불하지 않았습니니다, 고용 후 월급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 여권에 실명을 사용하셨습니까?
[] 예 [] 아니요, 이유는? _____

11. 한국 입국 시 사용한 비자는 무엇이었습니다?

[] 관광비자 [] 약혼자비자 [] 예술인비자 (E-6)

[] 기타, 상세히: _____

12. 모국에서 바로 직접 한국에 도착하셨습니까?

[] 예 [] 아니요, 경유하신 국가는: _____

13. 도망하기 전, 남자친구와 동거하기 전 아니면 남자친구랑 결혼하기 전 일하던 클럽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_____

클럽고용인시절과 결혼 후의 생활상의 변화

클럽고용인시절의 생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클럽에서 일한 기간, 급여, 근무조건, 생활여건, 부당한 대우 등등.)

1. 클럽생활을 청산하고 결혼 후 왜 그리고 무엇이 변화 되었나요?

(왜 결혼하기로 결정했는지, 어떻게 클럽을 떠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현 남편을 만났는지 등등.)

생활여건들

현재 생활여건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비자가 바뀌었는지/최근비자가 무엇인지, 전세비는, 집의 크기는 그리고 본인이나 자녀들이 살기에 편하고, 안전안지 그리고 본인과 자녀들의 건강상태 등등)

의료 도움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 설명해주십시오.

클럽생활을 그만둔 후 결혼이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안락함이나, 경제적으로, 건강상, 자유시간 등의 측면에서) 변화 한 것 들이 있다면 설명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생활

사회생활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여가시간에 누구와 어떻게 지내는지 등등)

문제점이나 하고 싶은 말

결혼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어떻게 어려움들에 대처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비자상의 문제나, 생활여건상, 경제적으로, 남편, 자녀문제, 고용주 등등.)

